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환황해포럼은 황해를 경쟁과 갈등이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아시아 평화 공동체'구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으로서,
경제·환경·역사·청년연대 등의 분야에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환황해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 **시간** 2016년 11월 3일(목)~4일(금)
- **장소**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날짜	시 간	프로그램	
1일차 11월 3일 (목)	09:00-09:40	등록	
	09:40-10:30	개회식	개회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축 사: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환영사: 오시덕 (공주시장) 기조연설: **'평화오딧세이에서 본 환황해 평화공동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10:30-11:30	특별세션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사회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발표자: •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한국의 시각에서'** 김성환 (한양대 특훈교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일본의 시각에서'**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학 총장, 전 일본 방위대신) •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중국의 시각에서'** 진징이 (북경대학교 교수)
	12:00-13:00	오찬	
	13:00-14:30	본세션	**평화1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회자: 김광억 (산동대학교 인문사회대 1급교수) 발표자: • **'아시아 평화번영의 길: 생활유학 가치 공유'** 황위쉰 (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의 현황과 과제 – 교류의 목표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장호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 **'산둥성과 충청남도의 유가문화 협력교류 전망 시찰'** 정샤오슝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충남-산동 유교 문화교류의 실천방안 모색'** 이상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평화2 "황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환황해권 해양 협력확대 – 해양환경을 위주로" 사회자: 김웅서 (한국해양학회 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발표자: • **'황해 환경오염실태 및 개선대책'**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 전 한국해양학회장) • **'황해 생태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토바이 사다요시 (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지부장) • **'한·중 황해 공동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권재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우리 공동의 황해: 해양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심층 토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장자오후이 (중국-PEMSEA 지속가능연안관리협력연구소 부소장) 토론자: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4:30-14:50	휴식	
	14:50-16:20	본세션	**번영1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사회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 글로벌화'** 김도훈 (서강대 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 **'지방경제발전중의 중소기업문제 – 중국 위해시를 중심으로 –'** 자오유푸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번영2 "환황해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회자: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발표자: • **'태안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 활용 전략과 한류3.0'**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MBA 교수) • **'공급사슬 네트워크는 어떻게 중소기업의 융자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공급사슬금융시각'** 송위엔팡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 **'환황해권 문화관광자원 활용의 기반이 될 한일협력방안'** 오타니 신타로 (한난대학 국제관광학과 교수) 토론자: 김영섭 (성균관대 디자인대학원 건축학 교수)

날짜	시 간	프로그램	
2일차 11월 4일 (금)	16:20-16:40	휴식	
	16:40-18:10	본세션	**공생1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발표자: • **'환황해 지역 대기오염의 거시적 배경 구조 및 개선과정 중 지방정부의 역할'** 왕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경제연구소 연구원) • **'충남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유 호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 **'한중일의 대기오염 극복을 위한 고효율 석탄화력기술의 협력체제 구축'** 윤민호 (일본국제금융정보센터 아시아부 특별연구원) 토론자: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공생2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도전과 과제" 사회자: 유용구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발표자: •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수소에너지의 전망'** 우치다 히로히사 (도카이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 **'충남 태양광 산업의 정책적 방향'** 김준태 (공주대학교 교수) •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개발 현황'** 임철호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토론자: 노상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09:30-11:00	특별세션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비전 2030"** 사회자: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발표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 의제와 과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중국 여성지위 제고 국가 메커니즘의 회고와 분석'** 장용핑 (전국부녀연합회 산하 여성연구소 명예연구원) • **'아베 정권의 '1억 총활약 사회'와 여성 정책'** 센다 유키 (일본 무사시대학 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김양희 (젠더&리더십 대표)
			"동아시아 청년의 미래" 사회자: 강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발표자: • **'꿈-자본, 그리고 '다른' 미래의 생성'**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일본 청년의 20년 간의 변화와 불변: 성찰과 청년 미래'** 테라치 미키토 (이바라키대 인문학부 교수) • **'본토와의 연결을 통한 성장: 미래를 찾고 있는 대만 원주민 청년들'** 왕정용 (대만 국립정치대학 사회사업연구소 부교수) 토론자: 김예란 (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1:00-11:20	휴식	
	11:20-12:20	자치단체회의	**"한·중·일 지역별 취약 재해·재난 유형 및 대응 노력 (재난관리시스템)"** 사회자: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12:20-13:30	폐회 오찬	

Contents

개회식 ····· 6

| 특별세션1 |

환황해 평화 공동체 구상 ····· 16

| 본세션 평화1 |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 교류 구축 ····· 28

| 본세션 평화2 |

황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환황해권 해양 협력확대 ····· 40

| 본세션 번영1 |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 54

| 본세션 번영2 |

환황해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 64

| 본세션 공생1 |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74

| 본세션 공생2 |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도전과 과제 ····· 86

| 특별세션2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비전 2030 ····· 96

| 특별세션3 |

동아시아 청년의 미래 ····· 114

| 자치단체회의 |

한·중·일 지역별 취약 재해·재난 유형 및 대응 노력(재난관리시스템) ····· 126

제2회 환황해포럼 이모저모 ····· 138

개회식

2016년 11월 3일(목)

09:40-10:30

개회사 | 안희정(충남도지사)

축사 | 윤석우(충남도의회 의장), 임성남(외교부 제1차관)

환영사 | 오시덕(공주시장)

기조연설 | “평화오딧세이에서 본 환황해 평화공동체” 홍석현(중앙일보/JTBC회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황해는 역사적으로 한중일이 교류해온 바다로 환황해권의 협력이 지역의 공동 발전, 번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 한국은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의 반도성을 회복해 환황해권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 황해를 물자와 사람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어야 한다.

| 개회사 |



안희정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를 맞이하는 환황해포럼을 준비해 주신 문정인 교수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해주실 홍석현 회장님께서도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황해포럼은 지난해 1회차를 개최한 이후 2회차를 맞습니다. 우리가 Yellow Sea라고 부르는 황해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한·중·일, 아시아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 충청남도는 해상 교류의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1,400년 전 고대국가 백제의 땅입니다. 1,400년 전에도 황해는 교류와 번영의 바다였습니다. 지난해 이곳 공주와 부여의 백제 역사 유적이 유네스코 역사 세계유산으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이 고대 아시아 한중일 3국의 교류를 여실히 보여주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포럼은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 1,400여년전 고대로부터 환황해를 통해 살아왔던 교류와 번영의 역사를 이어받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아직 지난 20세기의 여러 갈등을 다 치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미래에도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중·일은 20세기의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환황해를 아시아판 유러피언 드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번영과 발전이 충남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 분단체제 내에서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안보와,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향한 가장 원대한 포부이고,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럼에 참여해주신 한·중·일 지도자분들과 국내외 여러 분야 석학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는 환황해 번영이 아시안 드림의 새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사 |



신재원 제1부의장
(대독)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회 환황해포럼』이 민족의 영산인 계룡산과 자랑스러운 백제 유산을 품고 있는 이곳 공주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210만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본 포럼을 마련해 주신,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포럼의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환황해'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충남의 미래이자,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역사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국가 간 군사·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엉키며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큰 진전 없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우호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황해권은 이미, 금융·기술·인프라 등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환황해권의 국가들은 서로간의 경쟁이 아닌 공조에 무게를 두어야만 하며, 각 국의 지방정부는 분야별로 강점과 보완점이 공존하므로 서로 협력을 공고히 다져 나간다면,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아시아 지방정부간 공동 번영을 위한 발돋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도모하게 될 '환황해포럼'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해 나가며, 동아시아 번영을 약속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오시덕

제2회 환황해포럼이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공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년 환황해포럼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역사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는 1,500년 전 백제문화를 꽃피운 지역입니다. 특히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그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백제 왕국이 훌륭한 역사문화유산을 후세에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진취성으로 주변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시는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받을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해외 시와 교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이 환황해포럼의 목표인 아시아평화공동체 구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환황해포럼이 아시아를 넘어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 기조연설 |

‘황해를 보물선으로 가득 채우자’



홍석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지사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충청남도에 오니 벌써 넉넉한 인심이 느껴져,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만, 충청도와 인연이 깊습니다. 제 처가가 바로 충청도거든요. 돌아가신 저의 장인어른께서, 충남 서천 출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충청도에 오면 늘,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충청도하면 ‘우국지사들의 본향’으로 유명하지요. 서천 출신인 월남 이상재, 천안 출신인 유석 조병옥 선생 등이 바로 이곳 영명학교로 유학와서 공부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잠시 영명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했고, 3·1 운동 때는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준석 열사가, 공주 공설시장에서 시위를 주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와 품격의 도시, 웅진으로 불렸던 옛 백제의 수도 공주에 오면서, 심볼 마크,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제의 무령왕릉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인심 좋은 도시 공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무령왕은 용맹하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돌본, 어진 임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확고한 국방태세와 정치개혁으로, 국가 기틀을 바로 세우고, 적극적 백성 구제와 농민 계층 안정화로 세수 증대를 꾀해서, 백척간두에 섰던 나라를 정상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로 제 이야기를 시작한 건, 오늘날 우리의 위기 상황이 무령왕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듣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맞는 말일까요, 이 땅에서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 있을 때, 경보음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제게 기조연설을 제안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만, 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북·중 국경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같은 극동러시아, 그리고 북·러 국경지역을 둘러봤습니다. 북한의 국경 너머 북쪽엔 문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60여 개 국가를 물류와 에너지, 금융 네트워크로 묶는 '일대일로' 전략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 발표한 모스크바-베이징 고속철도 구상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7,000㎞에 달하는 이 구간을 고속철로 연결하면,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육로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될 게 분명합니다.

러시아를 향한 중국의 구애는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만강 하구의 북·러 접경도시인 하산에서 가까운 자루비노항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싶어합니다. 장차 열리게 될 북극항로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처럼 세계를 잇고자 하는 중국의 관심 어디에도, 한국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동쪽으로 달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탓도 있지만, 러시아의 미래가 극동지역에 달려있다고 확신하는 듯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앞장서서 연해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정치 수도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문화 수도라면,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제 수도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오디세이 일행이 돌아본 연해주의 변화는 생생했습니다. 세계 정상인 러시아 클래식 음악과 발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린스키 극장이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문을 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극동 시대의 개막을 겨냥하고, 한·중·일 고객을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정통 발레를 보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만 가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했던 동방경제포럼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고, 두 해 연달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같은 러브콜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입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러·일 양국의 정상은 열네 번이나 만났습니다. 연말까지 두 번을 더 만납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에게 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고, 다음달 15일에는 자신의 고향인 일본 남부 야마구치로 푸틴 대통령을 초청해 회담을 갖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북방 4개 도서를 돌려받겠다는 게 첫째고, 둘째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선점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집요한 노력과 푸틴 대통령의 실리 추구는, 결실의 실마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러·일 철도 구상이 그 결과물입니다. 양국은 하바롭스크에서 사할린을 거쳐 홋카이도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면, 섬나라 일본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고, 한국이 오히려 북한에 가로막힌 섬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반도의 반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작은 땅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반도의 반도성을 회복해서, 대륙으로 달려가고, 해양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저는 황해에서 그 가능성을 봅니다. 황해를 둘러싼 한·중·일 3개국은 GDP 기준으로 세계 2, 3,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전세계 GDP의 21%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22%를 가진 거대 경제권입니다.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 세 나라에 전세계 부의 5분의 1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지역공동체가 하나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지요. 북미에 NAFTA가 있고, 유럽에 EU가 있으며, 동남아시아에는 ASEAN이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Africa Unity, 즉 아프리카연합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황해는 어느덧 갈등의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동북아는 전세계에서 군사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140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일본이 410억 달러, 한국이 340억 달러의 국방비를 씁니다. 세계 최대로 6000억 달러를 쓰는 미국의 국방비 중 상당부분이 이 지역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인 1조7000억 달러의 3분의1이 동북아에서 쓰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19년 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에서, "평화와 협력은 번영을 가져오고, 대립은 혹독한 대가와 비용을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와 협력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그의 조언을 듣지 않은 인류가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게 됨으로써 증명된 케인스의 통찰은 오늘날 황해에도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 세계 GDP의 21%가 모여있는 곳이 황해권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지정학적 갈등을 지경학적 협력으로 풀고, 황해를 평화와 협력의 지중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 피에트로 도란 도란캐피털파트너스 회장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나 접해있는 황해에서 용이 솟아오르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그 용의 머리를 봤다"고 말한 것도 다른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황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해만이라 부르는 보하이만 일대를 개발하는, '환(環)보하이만 경제개발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동성과 베이징-천진-대련으로 이어지는 발해만 연안도시를 연결해 물류, 산업, 무역 개발 지대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는 대련-심양-장춘으로 이어지는 동북 3성 개발 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또 중국은 산동 반도와 대련을 잇는 해저터널도 구상 중입니다.

우리가 환(環)황해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황해에 접한 한국의 서부벨트,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가 그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래로는 새만금이 있고, 위로는 평택과 인천이 있는 충청남도는, 서부벨트의 중심으로 새로운 황해 시대를 열어갈 적격자입니다. "보령 앞바다의 섬 외연도에 가면, 중국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충남 아닙니까. 환(環)황해시대의 물류와 생산에서, 충청남도는 최적의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황해 연안 도시가 발달할수록, 해외 투자자들도 환(環)황해 지역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어디서 만들든, 충남 해안도시를 이용하면 바로, 중국 연안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근거리에 세종시가 있고, 주변에 사방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한국의 남동부에서도,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내수시장화하는 것이 한국 수출의 돌파구라면, 충청남도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동벨트를 시작으로, 경부축 벨트를 거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서해안 벨트가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이미 충남은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2000년 15억5000만 달러에서, 2014년 290억 달러로 열아홉 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이는 여덟 배에 그친 전국평균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5대 항만 가운데 당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개설된 한·중 항로는 14개입니다만, 내년에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산동성의 영성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 또 열립니다. 충남도청이 바다가 더 가까운 내포신도시로 청사를 옮긴 것도, 환(環)황해시대에 대처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황해는 한·중·일 3국간 교류의 바다였습니다. 각종 재화를 실은 3국의 배들이 황해를 누볐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신안선 유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5년 신안선을 발굴한 이후, 40년 동안 황해의 25개 해역에서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침몰한 고선박 14척을 확인했으며,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도자기가 10만점에 이릅니다.

통일신라 때 3국의 해상무역을 주름잡았던 장보고의 청해진이나, 멀리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 찾아와 '코리아'라는 이름을 서방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고려 때의 벽란도, 그리고 중국 무역선의 순항을 위해 용왕에 바치는 희생물이 되어 황해도 앞바다인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 이야기 역시, 예나 지금이나 황해가 한·중·일 3국을 잇는 핵심 채널임을 말해줍니다.

'평화 오디세이 2016' 일행들은 지난 8월 안중근 의사가 단지동맹을 맺었던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안 의사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 의사는 저서 『동양평화론』에서, 황해에 면한 여순에서 한·중·일 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이곳을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3국의 평화를 위해 3국이 황해를 교류 협력의 무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안 의사는 100년도 훨씬 전에 내다봤던 것이지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화폐를 공유하고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그야말로 유럽연합 못지않은 통합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중심도시가 여순일 필요는 없습니다. 황해를 평화와 협력의 지중해로 만든다면, 그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한 도시가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환(環)황해 프로젝트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열차에 올라타려면, 러시아와 일본이 만나는 테이블에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려면, 우리는 황해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해를 한·중·일 3국의 교류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에게 모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우리가 3국의 해상교류협력을 주도하게 만들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황해를 '평화와 번영의 지중해'로 만든다면, 그 바다에 면하고 있는 북한 역시 지금처럼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역시 제 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제2의 청해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황해를 풍요와 번성을 실은 보물선들로 가득 찬 평화의 바다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특별세션1

2016년 11월 3일(목)

10:30-11:30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사회자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발표자 | 김성환(한양대 특훈교수, 전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한국의 시각에서'

모리모토 사토시(다쿠쇼쿠대학 총장, 전 일본 방위대신)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일본의 시각에서'

진징이(북경대학교 교수)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 중국의 시각에서'

황해에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한다. 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중 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또한 황해를 따라 이어지는 남중국해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미-중, 중-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동북아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황해는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한-중-일 삼국 간 교역의 통로로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터전으로 자리잡아 왔고, 향후 역내 관련 국가들 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 매커니즘 구축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완충지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복잡한 외교안보적 현안이 평화 지대로서의 황해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내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역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색해본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한·중·일 협력 공동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환황해가 중심이 되어 경제를 우선으로 한중일 삼국이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 동북아시아에서 협력체를 만들려면 한·미·일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필요하다.
-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핵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문정인


김성환


모리모토 사토시


진징이

문정인 오늘 첫 세션은 환황해 평화 공동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성환 장관님께서 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환황해 평화공동체가 무엇이고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성환 제가 현직에서 근무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은 한·중·일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서울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중·일 세 국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려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충남도에서 환황해포럼을 개최하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황해포럼에서는 민간 부문의 교류를 중점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평화로울 때는 황해가 교류의 장이었지만, 경쟁과 각축의 관계였을 때는 전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황해는 과거에서부터 한·중·일의 교역의 통로로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일본이 병력을 실어 나르던 곳도 황해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제 1교역국인 중국과 제 3교역국인 일본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한·중·일 삼국이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세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는 서로 경쟁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중·일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갖는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4.57 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3.2 입니다. 한·중 관계를 협력 관계로 보는 이가 56.9%, 한·일 관계를 협력 관계로 보는 이는 27.7% 였습니다. 미래에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49.1%였고 미래 한·일 관계 개선 전망은 36.5%였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봐서도 한·중·일 간의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 나라가 정세 안정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세 나라가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북아 안정이 한·일 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세 나라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한·중·일 협력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 여러가지 협력 포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황해 포럼이 기존의 포럼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북핵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핵 압박 문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한·중·일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의 전략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토와 역사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간의 마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것이 정책 결정자에도 전달이 돼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중·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환황해 포럼이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꾸준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리모토 사토시 저는 공무원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식 때 홍 회장님의 말씀 중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일본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간의 정상 회담을 12월 중에 꼭 도쿄에서 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 후에는 러·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입니다. 15회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토 문제가 얼마나 진전이 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하고 있지 않지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동 지역의 영토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시아 외교는 상당히 다양한 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한·일만 보면 지난 주부터 시작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번에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중·일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은 미 대선을 앞두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고 한·중·일 정상회담조차도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경제, 문화, 인적교류, 스포츠, 관광 등의 부분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익이 이를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중·일 협력사무국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해양 안전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의 이른바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중국이 해남도에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해협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일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수송로이고, 일본의 우선순위는 동중국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해로의 진입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특히 센카쿠 열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의 유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한·중·일 간의 유전 개발에 대한 대화가 중단되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중·일 간의 해양개발 매커니즘입니다. 이 부분도 좀처럼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해양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출범을 하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일·미·한”이라는 새로운 동맹체제를 구성해서 미국의 rebalance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미 대선이 끝나면 한·미·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체제를 만들려면 한·미·일 만으로는 안되고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포함한 5개국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중국이 도발 행위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협력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선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진전을 보이고 그 후에 한·미·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경제 개발을 이야기 하고 또한 안전보장 면에서의 정보 공유나 각 국간의 훈련 장비, 기술적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억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자간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한·중·일과 미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징이 저는 환황해 지역의 한·중·일 삼국이 지정학적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황해를 일본에서 보면 환황해 연안 규슈 지역은 일본 항공모함이 들어갔던 지역이었습니다. 황해 연안의 산동반도와 한반도는 옛적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한·중·일 삼국이 예부터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한중일 교류 서막이 황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우리 황해 지역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했던 장소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이 충돌했고 열강들의 이익이 충돌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중국의 연안에 있었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까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황해 혹은 일본이라고 검색한다면 황해해전이 떠오릅니다. 황해해전은 청일전쟁때의 키워드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로 벌어진 해전이었습니다. 황해 연안은 개방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황해 지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먼저 한국에서 환황해 관련 공동체 구상과 관련한 협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북방과 남방의 이념이 충돌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념의 충돌이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구상에서 다시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환황해 지역의 협력에 있어서 한·중·일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서해안 지역이 개발되면서 황해가 다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의 핵심 기업들이 한·중·일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ASEAN+3라는 기제로 한·중·일이 만나기도 했으나 중국이 성장하고 2011년부터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지역이 부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냉전의 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지역은 교류의 지역이었습니다. 한·중·일이 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드 배치가 한·중 양국의 지정학적 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경학은 지정학을 대신하여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북아는 전쟁의 위험과 경제 협력을 병행하면서 협력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은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요소가 한·중·일 삼국이 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환황해 경제권 구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바로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환황해가 중심이 되어 한·중·일 삼국이 협력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한중·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Q&A |

Q 문정인 제가 먼저 김성환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환황해가 갈등의 바다는 아니었는데, 장관님께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실 때 환황해가 평화의 바다에서 갈등의 바다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김성환 제가 이명박 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를 평화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 문정인 진징이 교수님께 드릴 질문은, 옛날에는 중국이 황해를 전략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2010년부터 황해권을 전략적으로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진징이 사실 2010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황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언제나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각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황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황해 지역에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고,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이 아시아를 재구성하면서 중국 인근에서 전략 무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황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해 지역이 중국에서는 가장 큰 위험을 동반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중국이 남중국해, 동해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모두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근대사 이후에 전쟁을 경험한 지역은 황해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Q 문정인 모리모토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방위청 장관을 지내셨는데, 사실상 황해는 일본 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이 말하는 동해나 일본이 말하는 일본해도 아닌 이 황해는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A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이 황해 자체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중국이나 한국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된 것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 해군이 일본 남서 방면을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해마다 넘어오고 (활동범위가 해마다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먼 바다 쪽에서의 활동이 늘어나서 2012년 정도에는 대략 일본의 남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활동 폭이 넓혀졌습니다. 중국이 먼 바다 쪽으로 나오는 전략적 시스템이나 미국 해군에 대한 공격 능력, 미사일 배치 등이 황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곳이 중국이 먼 바다로 나오는 근거지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연안에서 보면 어떻게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국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일본 오키나와쪽으로 이동했고 이로 인해 중국에게도 황해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 된 것입니다.

Q 문정인 김 장관님,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전략적 자산이 우리 황해 쪽으로 온다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닙니까?

A 김성환 그래서 미국이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항공모함을 보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서해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A 진징이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최근에 핵 항공모함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Q 문정인 최근 들어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김성환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긴장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A 진징이 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원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모든 위기가 닥쳐오는데요. 장관님 말씀처럼 항공모함이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문정인 그런데 과거 냉전 시절에는 서해 바다가 갈등과 전쟁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전략적 개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세 분 공히 말씀하셨듯이 평화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모리모토 사토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삼국 동맹을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해 나가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결국엔 동맹을 기초로 하는 집단 방위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시진핑은 신 아시아 안보 구상이라고 하여 동맹을 넘어서 소위 공동안보, 협력안보, 포괄안보, 지속가능한 안보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 황해의 평화공동체 수립이 가능할까요?

A 김성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그 평화를 보장하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면 몰라도 미국과 북한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자꾸 미국과 하려고 하는데 한국과의 전쟁이었지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우선 평화가 와야 더 나아가서 삼국간의 평화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Q 문정인 그런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면 북한은 핵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도 수용하고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A 김성환 이미 중단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간의 신뢰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협력 공동체를 말씀 드린 것처럼, 서로 간의 신뢰가 우선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죠.

Q 문정인 모리모토 장관님, 환황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동맹이라는 불안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집단안전보장체제와 같은 적극적인 평화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미·일 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안보체제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히 아베 내각 체제 하에서 말입니다.

A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에게 있어서 미·일 동맹은 첫째,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rebalance하기 위한 자원 투입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이를 지원해주거나 협력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군 자원이 충분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동맹 국가들이 어떻게 미국의 이 정책을 지원해 줄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아시아에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천히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문정인 진징이 교수님,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완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소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치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중국의 경우엔 어떻게 이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까?

A 진징이 저는 오늘의 이런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기원이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냉전구도, 남한과 북한의 대립구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핵 문제를 둘러싼 게임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가 미국에서 컨트롤 되면서 미국이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미국이 동아시아에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입니다. 남북이 이걸 풀어야 합니다.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것이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문정인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내년 말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는 어떤 보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A 진징이 저는 사드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 100이면 100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사람들은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미국이 괌부터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고,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그런 미국의 전략이 코밑까지 닥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문정인 김성환 장관님은 어떻게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김성환 사드 문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사드는 아직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빨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는 중국이 조금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문정인 모리모토 장관님, 한·미·일 삼국은 일종의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NATO와 같은 동맹체제 구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미국, 한국의 동맹관계는 역사도 있고 조약도 존재하고 근거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정치 체체 하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일·한 동맹관계가 있고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상호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원만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정치 체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문정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인천과 칭다오 사이 해저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A 진징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빨리 남북이 뚫리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Q 문정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국제교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 김성환 저는 민간 교류가 늘어나면 정부간 교류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서 꾸준히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정부 지도자 분들이 중앙정부 지도자로 가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본세션 평화1

2016년 11월 3일(목)

13:00-14:30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회자 | 김광억(산동대학교 인문사회대 1급교수)

발표자 | 황위쉰(산동대 유학고등연구원 부원장)
'생활유교가치의 공유와 아시아 평화'

장호수(충남역사문화연구원 원장)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 방안'

정샤오슝(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충남-산동성 간의 유교문화 교류협력의 전망과 고찰'

이상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남-산동 유교 문화교류의 실천방안 모색'

최근 환황해 교류에서 경제통상 중심의 교류 프레임을 극복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대두되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 간 문명교류는 유교 및 한자와 같은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공통의 문화적 배경은 초미한 이해관계 중심의 경제통상 프레임을 벗어나 인문 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명 가치를 재평가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2017년부터 산동성과 국제여객선 개통을 앞두고 있고,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및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등 유교의 현대적 재조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 산동성의 경우도 유교의 본향으로 국가의 지원 아래 유교진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환황해권 국가 간 정치 및 경제 중심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위해 '유교'라는 상호 문화코드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서 민간차원에 이르는 다층적인 인문교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유학은 현대에 적용하기에 그 형이상학적인 종교적 특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형이상학적인 심성론을 벗어나 생활유학에 적용할 수 있는 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학을 도구적 측면으로 활용한다면, 유학을 통해 이성(이지)의 아시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 민족주의 및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 유학 교류에 있어서 마주한 형식적인 어려움은 공통 언어의 부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필요하다.
- 유학을 인문학, 학술적인 차원에서 넘어서 사회과학 분야로 넘어가 유학의 대중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산동성과 연계한 유교 관련 포럼 및 학술회의 연계 확대도 제안할 수 있다. 유교 관련 연구기관 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유교 전통을 간직한 전통마을간의 교류나 같은 성씨를 쓰는 집단간의 혈연성을 바탕으로 한 교류도 가능하다.



김광억



황위쉰



장호수



정샤오슝



이상균

김광억 환황해 포럼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 문화적인 교류관계를 논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학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관계를 논하는 자리를 시작으로 충청남도와 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황위쉰 최근 유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인 유학 교류입니다. 이번 회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키워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의 평화 번영에 관한 문제, 또 다른 문제는 평화와 유교와의 관계입니다. 올 5월 한국에 왔을 때, 성균관대학교가 개최한 동아시아 학술회의에서 한·중·일 학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 테마 중 하나가 한국인들이 잘 쓰는 '생활유교'(삶 속의 유교)였습니다. 유교에 대해 말할 때 한·중 간의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유교와 유학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다른 용어로 씁니다. 중국에서는 유교를 말하면, 오늘날 일부 유학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유학을 어떻게 보면 불교와 이슬람 같은 현대적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이걸 '유교'라고 부르는데 많은 다른 학자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습관적으로 유교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유교는 중국의 유학 개념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필요한 '생활유학'입니다. 우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생활유학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의 학자 궁펑청(龔鵬程)이라는 교수의 '생활의 유학'입니다. 이론의 핵심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학을 오늘날 삶에서 활용해보고 이론적인 유학을 실천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 비판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고대의 유학을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형이상학적인 부분, 즉 윤리·정치적인 부분에서 보면 오늘날의 시대에서 청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유학의 활용이 제국이라는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의 기존의 전신인 형이상학적인 심성론은 성선설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성선설은 고대 유학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심성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학을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 전통의 유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현대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전통의 유학을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는 유학은 공자, 맹자가 말한 유교를 말합니다. 형이상학적인 것을 넘어 생활의 감정에 맞는 유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형이하학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을 아시아 번영이라는 테마와 연결시켰는데 그렇다면 생활유학이 동아시아 평화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선 동일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긴장관계의 지속이 아닌 평화의 아시아를 원하고, 아시아의 번영은 아시아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가의 '화(和)'라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합과 조합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아시아 평화는 각국들이 모두 동일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같음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가 이런 목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규범화된 아시아라면 예(禮)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합니다. 화합되기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한데 예를 기준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도구적 측면에서 이성(이지理智)의 아시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에서도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아시아를 만들려면, 민족주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이 서는 의(義)(정의)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성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차등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같은 것으로 바라보는 일차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유교의 원리는 '지(知)'입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양지(良知)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 원칙은 정의감의 이성화, 원칙화입니다. 이러한 정의감이 바로 양지입니다. 양지가 없으면 정의도 없고 곧 평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학에서 핵심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仁)', '인애(仁愛)' 혹은 '박애(博愛)' 라고도 합니다. 박애의 아시아, 박애정신을 가진 아시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의 가치를 말하자면, 아시아의 평화에는 인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미쳐서 손에 넣었으나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잃게 될 것이다"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이성만 따라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호수 정치, 경제적인 주제를 벗어나 문화로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보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 중국의 유학은 '생활유학'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 넓게는 베트남까지 포함한 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특히 현대 상황의 전개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교라는 문화 공유를 통해 교류하고 있는지, 교류의 내용보다는 방법론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환황해'라는 지역은 어떤 범위일까요? 역사에서는 넓은 의미로서는 남중국해를 포함합니다. 주로 한·중 간의 유교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전통문화의 붕괴가 일어나 유교문화의 유산들은 형태만 간신히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고전 읽기와



같은 전통의 부활이 일어나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에 공자학원을 만드는 등 유학과 관련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실제로 현재까지도 유교적인 생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가장 활발히 유교를 가까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유학정신)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유교가 가장 잘 남아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현재 일본의 유교는 불교와 신도와 비슷한 형태로 종교화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범을 많이 거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교육기관의 흔적 정도입니다. 이렇게 환황해 지역이라는 국가들 사이에 역사적인 유교 수용이나 전개과정이 다름에도, 유교적 가치관 면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웨이밍(杜維明)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시아 유교문화권 사람들 마음 속에는 유교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 교류는 한·중 간의 교류가 주를 이루고 아직까지는 정부주도형이 다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동북아포럼에서 안보,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도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특히 동북아 공동의 정체성을 재고하는 것, 유교를 통한 공동체의식 성장 등이 중요한 논제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정치, 안보협력, 경제, 통상 외에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합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양국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도 촉진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인문 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치경제면에서 강조된 것은 인문열(人文熱)이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 교류, 지역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어 2014년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국 경상북도와 중국 산시성, 제주시와 하이난성, 충청남도와 구이저우성, 인천광역시와 티엔진시 등으로 교류 도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교 교류를 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아시아의 평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중국은 유교문화권의 종주국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려 하지만 문명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만들어낸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가 같이 모여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류의 목표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로는 유교 가치의 확산, 그리고 유학 매개의 대화 주제 확대가 있습니다. 유학 가치의 확산은 일상 생활 속에서 예에 충실한 덕목을 실천하고, 청소년에게 인성 교육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펼쳐진 서원의 강학 기능 회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 교류에 부딪치는 과제는 일단 공통 언어의 부재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 경험과 피상적 이해로 진정한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어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자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학교류방법론으로는 지식의 공유 면에서 양자교류에서 다자교류, 중앙에서 지역정부 차원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공유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장(儒藏)사업이 있습니다. 한·중·일·베트남 유교문화권 공유의 정신 자산을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교 경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산업·문화적으로 폭넓게 쓰일 수 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통문자(한자)를 통해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교류에서 다자교류로는 한·중·일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한 '미래를 지향하는 한·중·일 협력'사업을 통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한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공용한자 선정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808자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성균관과 문묘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의 국자감과 공묘, 그리고 베트남과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베이징대, 서울대, 동경대, 하노이대로 대표되는 각 도시의 국립대학이 모여 '베세토하(BESETOHA)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가간 교류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市) 차원의 교류나 민간 교류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경북과 산둥성 위주에서 향후 타 지역으로 문화산업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유교문화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교를 매개로 한 활발한 공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정샤오슝 유교 연구에서 사회과학자들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산둥성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입장에서 유교문화를 교류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SNS를 통해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는 중국 학술계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통수단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서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둥성은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공자와 맹자의 고향으로 산동성은 유교에서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부(曲阜, 공자의 고향)에서도 '세계유학대회'가 열리고, 공자문화상을 열기도 했습니다. 여러 문화, 종교의 주제로 열린 '중국 니산세계문화포럼'에서는 한·중 양국의 정상이 유학교류에 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인문교류를 주로 담당하는 산둥사회과학원, 유가문명혁신센터와 같은 곳에서 유학 교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둥대학은 충남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수도는 많이 가지만 공주는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충청남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학교류를 통해 동아시아가 직면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둥사회과학원은 국립안동대학 공자학원과 '한중유교문화연구센터'를 협력 설립하였고, 〈국제유학총론〉이라는 잡지도 발간했습니다. 안동대학과는 이미 이처럼 긴밀한 협력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이 한국 유학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충남의 중국과의 교류가 경상남도보다는 조금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공자의 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부연구원을 방문하여 유학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백제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써 유학이 초기에 발전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학자인 왕인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산동성 박물관은 전세계 최대 구조의 박물관을 만들어 놨을 뿐 아니라 유학 연구결과들을 전시하고 학술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지주회사인 육예성은 예술단을 운영하며 해외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러 경제적 상황 악화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과 문화 교류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그만의 유학에 관련된 연구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남도 경북과는 다른 유학 분야에 대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문화는 중국에서 발전했고 새로운 유학 연구나 실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국과 교류하며 보완해 나가길 바랍니다.

유학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학은 하나의 중국 사상 자원입니다.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는 유학의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禮)를 사회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등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유학의 너무 본질적인 것(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좀 더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의 사회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왜 다양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왜 유학을 삶에 녹여 넣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의 이런 유학에 대해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며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균 유학교류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와 산둥성 사이의 교류 필요성은 이러합니다. 현재 아시아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패러독스'란 환황해권 국가간의 경제적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외교, 안보 영역은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고, 충청남도와 산둥성 간의 이익 관계를 벗어나 문화에서의 교류가 존재하는 게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문명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 시기 선진유학의 도입, 성리학의 도입이 그 예입니다. 조선시대 한국의 성리학이 유입된 이후에 지배층에서 일반층까지 생활윤리로 유교(의례, 오륜행실도 등등)가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유교문화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은 상이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근대 제도에 기반한 친족 조직 변용 및 재산 보존, 도시화 영향 속에서도 유교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을 해 지속되어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송대에 북방 유족이 들어서지만 유교를 하나의 국가 통치로 전승했습니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관료를 배출해내는 과정이 유교와 관련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근대에 이르러 신문화 운동, 반(反)전통운동이 일어납니다. '공자를 타도하라'는 것이 그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후 중국 사회에서 유교

전통은 들어설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옛 것을 버리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교 잊기는 30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90년대 민간전통이 부활하고 민간 유교기관이 다시 탄생하는 등 매우 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 서로 다른 근대화 경로를 거치면서 오늘날 유교문화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이데올로기, 전통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유교문명을 기반으로 한 '유교문화 공동체' 구상은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대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유교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가능한 작업입니다.

한국인에게 유교의 지역은 안동입니다. 실제로 유학은 조선 전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유독 유교의 지역으로는 안동을 꼽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안동 지역이 근현대 개발이 늦어 상대적으로 보전이 잘 이루어지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 관련 지식의 생산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해 전통 경관 보존 및 정비가 이루어지고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마케팅이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충청권은 경북의 '영남유학'과는 대별되는 '기호유학'이 발전했습니다. 지자체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청사진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 유교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기호유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충청유교'라고도 말합니다. 충청유교는 시기적으로 백제시대 왕인, 일본으로 논어 및 천자문을 전파한 사람 정신보, 고려말의 이색 그리고 한말 시기까지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충남은 구마모토와의 교류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산둥성 진행 유교 관련 포럼, 학술회의를 연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교 관련 연구기관 교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교전통을 간직한 전통(외화민속마을)의 교류도 가능합니다. 양국의 전통마을이 관광과 유교문화전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더 쉽고 효율적으로 교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민간교류에서는 정신보(鄭臣保)를 시조로 하는 서산 정씨들이 중국 성씨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친족집단은 같은 혈연을 가졌다는 상징적인 측면을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물꼬를 터준다면 교류가 더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 Q&A |

Q 김광억 아시아 평화 구축을 위해서 공동의 가치를 유학에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화(和)'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고 또한 유교의 예에서도 아시아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예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무엇이며, 그 안에서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제질서에서 말하는 법치는 또 무슨 관련이 있을지요.

A 황위쉰 예에 관한 질문은 유학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모든 사회규범을 예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는 예제를 통해 표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가에는 주례라는 하나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모든 사회 측면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질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예를 적용하면, 공자의 예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예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공자의 예는 보편성, 둘째 적합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집단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에는 덜함과 더함이 있습니다. 예는 영구적이지만 모든 나라에서 모인 군집생활에서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선사시대에서 현대시대까지 오면서 사회 제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 관계 역시 달랐습니다. 중국 고대와 고대 조선의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에는 덜함과 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가지고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전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김광억 중국에서 한국의 전통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A 황위쉰 산동유학고등연구원에서 여섯 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약 100만~200만 위안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유학계가 한국 유학계와 교류를 고려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 유학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Q 김광억 유교의 실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예의(장례, 상례, 혼례 등등)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유교를 실천하는 하나의 기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A 정샤오슝 발표 패널 5명 중 3명은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두 명은 가지런히 다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학이 강조하는 예의 한 생활 속의 실천입니다. 저는 다른 분을 만나면 담배를 피우지만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하고 마주보며 담배를 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압니다. 중국은 도시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런 예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동북지역에서 많이 들었던 것이 젊은이들은 베이징에 가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전통이 무너지고 80년대 90년대부터 다시 전통 가치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도시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일어나지만 예의 가치를 잘 가져야 하고, 한국이 이 점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류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론에서 유학은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가 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야 하고 조화롭고 화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유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김광억 유학이 어떻게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유학은 민족, 평등, 자본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심원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현대의 용어나 현대의 의미로 전달할 수 있는가가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도 유학의 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다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대와 맞지 않는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학에 대해 고민하는 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 정치는 사라지지만 문화는 오래 갑니다. 한국 내에서는 안동과 공주가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대표로 교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리학 위주이지만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 양명학 등으로 유학이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어느 지역을 보고 유학은 없다, 유교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본세션 평화2

2016년 11월 3일(목)

13:00-14:30
"황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환황해권 해양 협력확대
- 해양환경을 위주로“

사회자 | 김웅서
(한국해양학회 회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저환경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원)

발표자 | 최중기(인하대 명예교수, 전 한국해양학회장)
‘황해 환경 연구의 문제점’

토바이 사다요시(세계자연보호기금 일본지부장)
‘해양 환경 중심의 황해 지역 내 국제 협력’

권재일(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중 황해 공동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장자오후이(중국-PEMSEA 지속가능연안관리협력연구소 부소장)
‘우리 공동의 황해: 해양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심층 토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토론자 | 허재영(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황해는 해양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높으며, 생물자원이 풍부하여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황해를 둘러싼 연안역 개발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남획과 해양오염으로 해양생물자원이 감소되고 있다. 한국, 중국,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어느 한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생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없다. 이 세션에서는 황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협력하여 훼손된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황해 환경 보호를 위한 중국, 일본간 연구자와 연구소의 공동협력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한계점은 항상 정부간의 이해관계였다. 앞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 민간, 지자체 간, 정부 간 이해관계를 좁히다 보면 궁극적인 황해 환경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황해 오염의 주요 원인은 오염된 연안수의 유입, 기름유출사고, 해양쓰레기투기, 과도한 어업 간척지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황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한국, 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 황해는 여러 나라가 함께 공유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도 같다.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함께 협력해서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웅서



최중기



토바이 사다요시



권재일



장자오후이



허재영

김웅서 오늘 사회를 맡은 김웅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황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환황해권 해양협력확대 - 해양환경을 위주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중기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황해 환경오염실태와 개선대책입니다. 앞서 환황해권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것에 대해 발표했지만 오늘은 황해가 어떤 바다인지 알아보기 위한 전반적인 설명과 황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염실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해는 과거 구석기 시대 전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바다로 형성된 것으로 약 8,000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40만km이고, 평균 염분은 낮아 황해는 다소 덜 짠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기본적으로 해류에 따라 물속이 달라지는데 황해의 해류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름철에는 주로 황해의 20m 아래에 냉수계라는 차가운 물이 존재하고 있고(10℃ 정도) 양쪽에 연안수가 중국에서 내려오고 있고 남부 쪽에서는 양쯔강 희석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에 차이를 보입니다. 여름철에 양쯔강 희석수가 제주도 쪽으로 나오고 있고 황해난류수가 유입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황해물의 오염 정도는 호수에 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순환이 되느냐가 중요한 이슈인데 4-5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쯔강의 배출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체류 시간도 증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황해 오염 원인은 육지로부터 오는 오염 물질뿐 아니라 대기로부터 오는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해역자체에서 유전이나 해난 사고로 인한 것도 요인이고, 해양투기라고 해서 바다에 덤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황사에 의해서 오염물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들어와서 황해 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기로부터의 질소는 황해의 부영양화에 큰 원인이 됩니다. 대기로부터 오는 질소의 유입량이 40% 가까이 됩니다. 여러 학자들이 한국과 중국 질소 발생이 오염의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중금속 중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경우는 대기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리, 납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 많이 강보다 대기로부터 유입됩니다. 과거에 일본 언론에서 황해 중금속 오염농도가 심각하다고 흑해연안과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해를 '죽음의 바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발해 쪽은 농도가 짙지만 황해 자체의 중금속 농도는 전체적으로 기준치보다 낮습니다.

황해로 들어오는 담수유입량이 연안 오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쯔강에서 배출되는 것이 40-50%가 황해로 유입된다고 했을 때 연간 총 약 5천억 톤에서 7천억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쯔강이 황해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오염물질을 나르는 하천이 황하인데 황하는 발해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으나 압록강의 경우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인공위성으로 양쯔강의 배출수 움직임을 보면 여름철에 황해로 들어오는데 약간 흑색의 토사 물질이 유입되는데, 이는 제주도와 상해를 잇는 곳으로 상당한 양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강 배출수도 8월에 많은 양이 유입됩니다.

황해로 유입되는 질소나 인산염은 소위 부영양염을 만드는 영양염으로서 해양생태학 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강을 통해 유입되는 총 질소나 인산염이 거의 60% 정도 보여지고 있고 대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이 30% 정도 됩니다. 강, 하천 외에도 직접 바다에 투기하는 오염물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해 군산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액상 유기물질을 연간 240만 톤을 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연안에 30여 개 장소에 1억 톤 정도 버려지고 있는데 주로 석탄재나 준설물을 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석탄재나 준설물은 큰 오염원은 아니라 국제적 규제는 없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우리나라 전 해역의 연간 약 10만 톤 정도 버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쓰레기와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해안 자체에서 나오는 것, 선박에서 발생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서 4-5만 톤 정도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약 5년간 전국적으로 60만 톤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매년 유입되는 것이 수거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조에 쌓이고 있어 해저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해 유전지역에서 유전 사고로 인해 발해만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등 기타에서 유입되는 것이 연간 평균 100톤 정도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태안 기름 유출사고 같이 기름 유출사고는 국지적으로 그 피해가 번지기 때문에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황해에 질소와 인 같은 물질이 계속 증가하면 적조와 식물 플랑크톤의 대참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해에서 인은 감소되고 있고 이에 비해 질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0년에 비해 40배가 증가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황해투기해역의 질소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해투기해역에서의 질소 농도 증가로 황해 가운데서 봄철에 노란색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종의 적조 현상입니다. 유기물 투기로 인해서 1급수 임에도 불구하고 부영양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중국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쪽에서 영양물질이 온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투기도 오염의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황해와 접하고 있는 인천항과 양쯔강 하구에서 퇴적물 내 DDT, PCB, PAH와 같은 유기 오염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측 자료를 보면 1급수 지역이 아닌 청결 미달 지역이 10%로 중국도 오염지역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짙은 녹색이 오염의심해역으로 양쯔강 하류와 간쑤성에 오염이 심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영양화 수역이라고 해서 질소와 인이 많은 곳이 양쯔강 하구를



중심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쑤성 부분에 연안오염상태를 보면 2002년만해도 간쑤성에 오염의심해역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기 시작해서 2015년 현재 의심해역이 200% 가까이 간쑤성 연안에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쯔강 하구는 저산소농도해역이 증가해 해저동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와 해수의 오염 정도에 따라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적조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적조가 일어난 지역에 독조라고 하는 심화된 오염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황해 환경대책 및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황해는 질소에 의한 부영양화가 심각하고 하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에 비해 질소 함유량이 많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적조와 녹조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저산소해역의 증가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황해 환경 대책으로 먼저 육상에서 오는 오염물질, 즉 질소를 제거하는 기법이 발전되어야 합니다. 오폐수시설에서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되어야 하고, 최신의 오염 처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강의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유출시스템의 신속 방제와 해양투기 금지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황해안에서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매우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해양 배출염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 교환시스템과 상호 감시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 5-6년간 황해 환경 생태계 공동 조사에서 중국 측에서는 중국 연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연안을 조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조사지역을 양보하지 않고 제한된 자료만을 만들어냈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중이 양측 연안을 공동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황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오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해 오염을 평가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목포에서 양쯔강 하류까지 황해 오염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장기적 조사처럼 한국과 중국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해의 평화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공동 연구가 절실합니다.

토바이 사다요시 먼저 황해의 오염 원인을 지적하고 세계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WWF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하고 있는 주요 활동을 소개함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민간과 전문가, 그리고 지방, 중앙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해의 자연환경은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안 대륙에서 가까운 해양은 생산성이 높고 어업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사람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철새와 같은 생물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에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철새가 이동해, 3, 4 월에 한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 대량의 물새, 철새가 도래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황해 부근의 연안 습지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물새의 중요한 이동 경로이고 러시아 알래스카를 포함한 호주, 뉴질랜드 같은 대양주에서도 황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 및 생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지나 공업지 등의 조성을 위한 간척 및 매립으로 인해 중국과 한국에서 40% 정도 연안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압록강 하구에 철새가 많이 몰려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경제 개발과 철새의 이동 경로지 보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함께 자연 습지 오염이 심각해지는데 하나로 연결된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WWF는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 황해 대규모 생태계 전략행동계획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협력하고 UN개발계획이 지원하여 지나친 어획을 관리하거나 국제오염물질 기준을 달성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2006년에는 황해 생태 지역 생물 다양성 우선지역 맵을 WWF 일본, 중국, 한국이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오랜 기간 한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중국에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황해에서 생물이 가장 풍요로운 부분이 어디인지 우선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렌지색 부분을 우선지역으로 나타내었고 파란색은 포유류나 돌고래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옅은 오렌지색 부분은 황해에서 매우 독특한 토양이 있어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우선 지역에 대한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단체 등 우선 현지에서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 곳에 먼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NGO, NPO협력을 얻어 23곳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기술적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14년에는 황해 생태지역지원프로젝트를 전라남도 무안군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인간과의 관계를 베이스로 해서 한국 무안군의 생물과 생태를 관리하기 위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자뿐 아니라 지역민이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3년간 계속 지역 지자체에 세운 센터를 이용해서 직접 환경교육교재와 연수 코스를 개발하고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민간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본에서 좋은 모범 사례로 알려져 앞으로 이처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조개잡이 구역에서는 해양보존협회(Marine Stewardship Council)를 통해 해양관리협의회의 국제적 인증제도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어업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국제인증을 받도록 해 MSC인증을 받은 어업장은 현지의 수산기업이나 대형슈퍼마켓에서 적극적 매입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소비자도 환경라벨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물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소비자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이런 구조를 실천해서 한국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재일 저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간 중국 칭다오 한국해양과학공동연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오늘 '한·중 황해 공동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중 해양과학기술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의 역사는 한·중 학회의 설립부터 시작됩니다.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는 1994년 10월 당시 중국의 국가해양국과 한국의 과학기술처에서 한·중 해양 과학기술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고 1995년 중국 칭다오에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을 파견하여 총 직원은 8명이고 매년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2년에 한번씩 공동위원회가 열려 해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중 센터 임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중 해양과학 기술협력의 교량과 창구 역할을 하고, 기술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소통의 채널로서 사무국의 기능, 정책 및 정보를 생산해서 공유하고 배포하는 기능, 양국의 펀드를 받아 연구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센터의 대표적 사업으로 '황해 해수순환 동역학 협력연구' 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6차례 공동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로 황해 해수순환의 동역학 구조를 규명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공동연구가 매우 순조롭게 이루어져 그 결과가 매우 수준 높았습니다. 공동으로 황해퇴적물 유형분포도도 작성하고 황해 냉수대 해역생태조사연구, 황/동중국해 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가장 최근의 한·중 핵 안전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개발 등 다양한 해양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발된 연구 결과가 활용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학술적, 사회적 부분에서 눈부신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정치적, 경제적 이슈가 민감할 때는 공동조사가 매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 연안에 대한 것을 공유하지 말자는 문제나 지도에서 공동연구영역을 획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3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의 과학발전을 위한 5개년 협력 원칙하에서 협력 분야를 제정한 것을 기초로 미래의 시대 사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국은 황해 및 자국의 영해에서 발생하는 해양에 기인한 재해재난 사고를 지속적으로

겪으며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자 및 정책, 정부기관들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황해라는 공통 해역의 지역성을 벗어나 전 지구적인 해양 문제 해결과 자원개발 즉, 북극해, 심해 자원 및 생물자원보호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해양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대응 기초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유사 시, 적시에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오후이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자 합니다. 지역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황해, 생태환경 도전, 공동대응과 협력의 필요성, 미래 전망 순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황해는 중국, 북한, 한국의 공동 해역입니다. 황해는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상 통로이며 4개국의 중요한 항구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연해 도시 롄윈강, 옌청, 난퉁, 르자오, 따롄, 단둥 등이 있고, 북한의 신의주, 남포, 한국의 인천 등이 있습니다. 황해는 풍부한 광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황해 분지에는 두터운 중생대, 신생대 침적이 있어 천연가스와 오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해의 장점은 중요한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팀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황해 연안 수괴, 황해중앙냉수괴와 남황해고염수괴는 황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3 종류의 수괴입니다. 황해냉수괴의 활동을 보면 황해 지역에 기후조절비교나 수질개선, 일차 생산량 등 매우 중요한 서비스와 생산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해는 전세계 50개 대해양 생태계 중 하나로 이 지역에 매우 중요한 어장입니다. 황해의 생물계는 북태평양구 동아시아권에 속하며 난온대성으로 그 중 온대종이 우위에 있으나 일정 수량의 난수종 성분도 있습니다. 해양유영동물 중 어류는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여종의 경제성이 큰 주요 어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황해에 생태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황해 지역에 공동황해수역에 있어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해에 생태환경이 변화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해에 어업자원 쇠퇴, 수질악화, 생태계 악화, 지속 불가능한 해수 양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건강 위생 조건이 낮아지고 모래사장이나 해수욕장 위생 조건 불합격이나 수산물 오염,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생태시스템 상황평가능력이 부족합니다.

황해지역에 주요 생태환경 문제로 7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어업자원 쇠퇴입니다. 황해의 고영양단계에 있는 생물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업용과 포획종 경쟁이 치열합니다. 50, 60년대에 잡혔던 참조기, 갈치 등 우량 어종이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황해 지역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생태 지역 간척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해 습지는 연해지역의 토지자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간척지의 요소가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황해 지역의 오염

상태는 동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1급 수질에 미달하는 곳은 4만km 이상 됩니다. 간쑤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고 북부지역의 양식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을 하면서 배설물과 잔여물이 정화를 거치지 않고 황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해양기름유출사고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름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해 지역 생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지역에 4건의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 중국 적조, 녹조가 발생했던 것을 보면 황해에 11-15년 사이에 적조 면적이 1000㎢ 증가했습니다. 적조로 인한 피해 면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은 매우 연결성이 큽니다. 해양생태시스템이라는 것이 물질과 에너지가 다른 곳과 이어지고 계속 유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결국 전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있습니다. 연안지역에 주민들간에 오염원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의 공동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황해지역의 생태계에 대해서 중국은 최근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어업 자원이 공동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포유류와 철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협력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주요 어업자원이 황해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주요 생물 어종이 산란되고 있기 때문에 황해지역협력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생태 시스템 퇴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 보호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력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입니다. 최근 들어 한·중 양국은 해양보호구를 정하고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협력 구축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황해 지역에 한·중 양국이 특히 보호해야 할 지역을 중국 35개, 한국 15개, 북한에서 7개를 정했고 앞으로 이러한 보호구를 보다 많이 확대해서 효과적으로 황해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의 면적 확대뿐 아니라 생태서비스를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에 관련된 계획에는 2013년에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설정한 동북아 지역의 10개 보호구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의 회유물종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어종에 대해서 보호하자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양 문제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서식지에 대한 환경관리와 생태회복기술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석 습지가 있는 한국의 시화호나 중국의 북방 허커우 간석지를 정비한 경험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양국이 시스템을 공유해서 서로 각국의 해양생태 보호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해양 보호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고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양보호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양자간 협력

기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부처간, 지방 정부간 관련 기관 간에 협력, 예를 들어 한국 해양과학공동연구소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한·중 양국뿐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자 간의 협력을 넘어서 국제기구 하에서의 황해 지역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해와 관련해서도 '람사'와 같은 국제기구체제하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의 협력교류강화와 기업 간 교류 강화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 간 정치나 외교 관련 여러 분쟁이 있습니다만 협력이 대세이고 해양 보존에 있어서는 협력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에서는 단일화되기 어렵지만 해양은 단일화될 수 있습니다. 황해의 해양다양성보호에 관한 회의가 올해 말 비준을 받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기제와 황해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활발히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재영 앞서 네 분의 발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지역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본과 중국의 확고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양환경의 협력에 대해서는 한·중·일 간 입장 차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이러한 공동된 입장이 황해 지역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일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우 유연한 재료를 통한 연결 루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황해권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충청남도는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작년에 서해안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서해안 비전의 핵심적 내용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건강한 바다(환경적 의미), 두 번째가 역동적 바다(경제적 의미), 세 번째는 소통과 교류의 바다(국제간 협력을 의미)입니다. 거기에 맞게 해양수산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포부는 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실현을 위해서는 특히 해양환경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션이 이것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다 환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다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가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용을 하기 전에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관리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용할 수 있는 해양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청남도는 하구 및 연안생태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간척으로 인한 폐쇄된 하구를 개방하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득권과 지역간 협력에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가로림만 내에 있는 고파도의 폐염전을 복구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연안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안이 건강해지는 길이 해양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바다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랑으로부터 바다는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랑에서 바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천은 영양염류와 토사를 바다에 공급합니다. 이런 것이 차단되면 건강한 바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랑에서 바다까지 일관된 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토바이 지부장께서 민간협력을 강조하셨는데 육지에 비해 바다의 민간단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안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는 바다 하나만이 아니고 서해안도 서해안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서해안과 남해안이 연결된 루트라고 본다면 국내 지역간의 협력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7-8년 전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봉사활동의 신기원이 될 정도로 많은 분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오염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사고에 대비하여 군함구조 대책, 깊은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양재난에 대한 국제협력차원의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황해의 오염은 중국에 원인이 크다고 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3대 하천인 황해, 양쯔강, 주강강의 규모는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은 도랑에 지나지 않을 만큼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유입 물질도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오염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 적조발생빈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도 오염의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염원 관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 투기, 쓰레기 문제는 환황해권에 인접해 있는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협약 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꾸려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공동으로 끌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환황해권 평화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경제적 성장도 무소용입니다. 정치 외적인 부분의 협력이 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자체 간 협력이 국가 간의 협력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2회 환황해포럼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해양환경오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Q&A |

Q 김웅서 황해는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한국, 중국,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황해 자료는 쉽게 볼 수 있으나 북한의 자료는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전에 YSLME을 할 때 북한의 과학자들을 국제무대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토바이 씨는 YSESP활동을 통해 단둥이라든지 압록강 주변에 여러 자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자오후이 박사님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황해 오염의 주원인인 압록강 근처에 대한 자료를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지역의 황해 오염에 관한 상황이나 자료를 얼마나 갖고 계신지요.

A 토바이 사다요시 북한의 해안선이 황해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임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의 기관, 중국의 민간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주시지만 북한에서는 정부나 민간에서 협력 가능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체에서는 국경지대뿐 아니라 국제적 참여를 도모해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A 장자오후이 북한의 경우 지금 PEMSEA의 회원 중 하나입니다. 저희 조직 안에서 북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황해, 생태환경에 있어서는 북한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20여 년 간 경제발전을 통해 오염원이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단체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남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3년 동북아시아 투어 안에도 북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의에서는 북한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에서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북한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 측 자료는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Q 김웅서 바다에 있는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바다는 생물자원의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란시기에 금어기를 제정하거나 해양보호구역을 설치해서 어획 활동을 막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근처에서 중국어선이 어획 활동이 이루어져 양국의 마찰이 있었는데요.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해양자원보존을 위해 중국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A 장자오후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황해에서 어업자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사실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업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황해 지역의 25개 보호구를 지정하고 해양 보호를 위해 양식 관리를 체계화하고 인공 방류 등의 조치를 통해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이 남획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사실 20여 년 동안 어선을 감축해왔습니다. 그리고 포획하고 있는 어민이 양식을 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해양으로 나가서 어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근해에서 하도록 유도했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한국에 어려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산둥성의 경우, 산둥성 정부는 해상에서 해상 관련 어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어민들이 어업에만 종사하지 않고 다른 농업 또는 중국 경내에서 양식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의 정부 노력을 통해 어민들의 포획 문제는 적절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서 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로 나갈 때 국경을 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하지만 오염물질은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각종 자원이 있는 황해, 그 보물창고를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보존하지 않으면 보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국, 일본과 20년 이상 공동연구와 협력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학자와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한 연구를 통해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항상 공동 연구의 마지막 벽은 정부 간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서로 간의 장벽을 넘어 황해가 잘 보존되고 후손도 황해의 자원과 이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세션 번영1

2016년 11월 3일(목)

14:50-16:20
“한-중 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2015년 12월 공식 발효된 한-중 FTA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양국 지방 경제권 사이에 무역과 직접투자에서 획기적인 윈-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발효와 즉시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 등유 등(연간 87억 달러 규모)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2016년 1월 1일을 기해 다시 5,799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간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 의 관세가 철폐되었다. 발효 20년차인 2034년에는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에 해당하는 11,272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 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양허 대상에서 빠졌으나 상당한 농수산물 품목이 무역자유화의 수혜 품목에 포함되고 있다. 충남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농수산물, 서비스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교하여 충남의 중소기업들은 수출과 글로벌화에 크게 뒤처져 있다. 충남은 중국과 FTA발효 1년차로 인한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본격 가동,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 세계 최대의 중국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글로벌화에 뒤처져 있는 충남 중소기업들은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물량 확대, 벤처 중소기업의 현지진출, 중소기업형 서비스 교역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국 지역경제의 기업들에 대비 상대적 비교우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과 서비스교역, 투자의 상호 확대를 위한 단기, 중장기 전략은(기술 및 가격 경쟁력 포함) 무엇인가? 중국의 지역경제 당국과 충청남도 당국과의 경제 활성화 협의 메커니즘과 양 지역의 대-중소 기업인 간 정례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본 세션에서 다루고자 한다.

사회자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 김도훈(서강대 교수, 전 산업연구원장)

자오유푸(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중국은 이제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벗어나 한국과 상당 부분 수출품목이 겹치는 경쟁과 협력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 환황해권의 지방도시들(위해와 충남)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통일성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중국의 새롭게 성장하는 주 소비 계층인 젊은 층과 여성 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중소기업들에서 고민해보아야 하며, 이를 돕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안충영


김도훈


자오유푸


이승신

안충영 저는 환황해포럼의 초기 개념을 정립할 때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경제무역통상을 전공한 저는 자유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충남 입장에서는 거대한 안보 담론보다도 충남 소재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환황해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화의 물결을 타고 일자리를 창출해 충남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국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초국경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지방과 지방 사이의 연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의 top-down 방식보다도 bottom-up 방식이 실질적인 글로벌화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황해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해상 통로를 통한 번영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해양화 전략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기업 간 융복합이 일어나며 지방 대 지방의 중소기업 간의 협력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99.9%의 업체 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18%입니다. 수출=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더 해외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해 가격경쟁, 품질 경쟁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김도훈 한-중 FTA가 체결 됐을 때 사람들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전부터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충분히 깊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적 차이 때문에 겪었던 문제들을 포괄적 규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FTA입니다. 동아시아만큼 자연적인 경제 통합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이 드뭅니다. 억지로 경제통합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경제가 통합되어 가고 있는데, 체제적, 제도적 차이 때문에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첫 발을 한-중 FTA가 디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FTA에서는 얼마나 많은 품목을 자유화(관세 철폐)했느냐로 성패를 따집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중요한 FTA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들입니다. 그러나 아세안이나 인도와 맺은 FTA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품목 수 기준 90%, 수입 기준으로 85%의 자유화를 성취했습니다.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상호 민감 품목, 즉 한국에서는 농산품을 중국에서는 공산품 및 제조품을 제외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않지만 서비스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중국의 FTA에 있어서 한국에게 처음으로 금융, 통신 분야를 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중 간에는 교류가 깊어지면서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민감한 주력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제한적 개방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일보 진전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한-중 간에는 분업 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주요 교역 상품이 비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 년 가량 전, 한국이 처음 FTA 체결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파트너를 중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수출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수출 품목이 겹쳐 가장 꺼려지는 파트너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의 수출 품목이 겹치고 있습니다. 액정디바이스, 메모리반도체 같은 고급 기술 제조상품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로 완제품보다는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나 중국 기업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에는 한국의 부품 소재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완제품 내지는 원재료를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품 소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러시 중 대한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한국이 꺼려하는 듯합니다. 두 국가의 경제 관계가 심화되려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또 중국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서비스 위주의 경제로 발달해 나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과 협력을 추구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도기술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도 분업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남에서도 중국을 받아들이고 충남도 중국으로 진출하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대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정보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런 큰 포럼도 좋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입지 환경을 강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산업분야에서 중국은 앞서나가고 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불러들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들을 위한 물류 기반도 충분히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류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금의 충남의 산업 발전 정도나 중국과의 교류 정도를 생각해보면 충남 중심의 물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오유푸 오늘날 한-중 관계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처럼 환황해포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통합, 환황해 공동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이 정치적인 상호신뢰입니다. 오전의 특별세션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사적 문제 등 얽혀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환황해권에서의 운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럼의 개최가 시의적절고 굉장히 좋은 교류 플랫폼입니다. FTA 틀 안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위해시와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와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시는 환황해 지역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위해시는 80년대에 어촌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중국 개혁개방 30년 후 오늘날 위해시는 국제화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인구는 70만 명에 달하고 도시 면적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대화되고 개방적으로 변모한 위해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 흡사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위해시에 대한 투자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지역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정부는 다름 아닌 한국의 힘을 빌어서 발전하자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보다도 이전에 위해시와 인천시 사이에 페리가 개통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개방된 중국의 모습을 위해시를 통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해시는 두 국가의 교두보와 같습니다. 초반에 중국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들은 위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위해 경제발전을 지탱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입니다. 2015년 말 중국에 공상 등록된 중소기업들이 2,100만개를 넘어섰고 5천여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으므로 약 7천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주체의 90퍼센트 이상을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2퍼센트가 대기업입니다. 납세와 일자리 창조에서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로, 위해시의 면적은 중국의 0.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해시의 1인당 GDP는 중국 전체 1인당 GDP의 2배나 됩니다. 중국은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힘을 빌렸습니다. 위해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매일 페리가 다닙니다. 하루에 4, 5회 비행기가 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 협정에 의거해 위해시와 한국의 인천 송도 신도시가 함께 한-중 협력시범구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FTA가 위해시 기업들에게 가져다 주는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협정에 따라서 해운산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FTA 협정 체결 이후에 양국간 교역액이 현저히 증가해 3,000억달러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상품 교역은 거의 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운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우대 조치가 취해지면서 항구와 해운업계의 시간적 비용을 절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산품의 경우, 10년 후 전체 농산품 목록의 31%가 개방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농산물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해시는 농산품 가운데에서도 수산품이 질과 양에서 뛰어나므로 해당 분야의 발전이 예상됩니다. 섬유제품 또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섬유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풍기나 전자레인지 등의 소형 가전제품들이 5년에서 10년 이내에 관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위해시에서 한국 상품 물류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 제품들이 중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하나의 창고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 부문에 있어 FTA는 관광산업 각 분야에서 성장을 끌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운수 비용도 떨어지면서 관광산업발전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영상연예계 협력도 늘어나고 있어 문화상품들이 FTA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영상문화사업도 초기단계로 진입했으므로 FTA라는 경쟁을 통해 협력하면서 중국 사업의 수준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위해시에도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FTA 규정에 따르면 양국이 상대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양국이 금융업계를 상호 개방하고 금융서비스업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위해시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 분야에 있어, 중·한 양국이 동일한 상황에서 상대국 투자자에게 국민에게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최혜국대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거주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인재, 자금 확보 등의 문제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해시는 중앙정부가 시범도시로 지정한 후에 우대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중 FTA의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될 것이고 그러한 높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해시의 서비스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정책과 제도를 결합시키는 것은 양국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줄 것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영향력이 큰 국가이므로 양 도시의 정책이 심하게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도시 간 정책의 소통, 일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비스업 분야(교육, 건강,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에서는 지방경제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해시는 한·중 FTA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동북아연구센터는 위해시 FTA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범도시라는 기회를 활용해 인천과 경제협력을 확장해나갈 방법을 모색 중이고 충청도, 경기도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과 지방 간의 협력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승신 한·중 FTA를 활용해 충남이 얼마나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지 말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한·중 교역 환경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간 교역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드는 요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중국 경기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가공무역 수입을 억제하고 있고 수입대체를 위한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입의존률이 줄어들고 현지조달률이 크게 늘고 있으며 자본재의 수출이 증가했고 중간재 수출비중이 마이너스에서 0에 가까워졌습니다.

충남은 우리나라의 상위 3위의 수출지역입니다. 무역수지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충남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의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출 품목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상품들이 대부분이라 경기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대체 구조변화 영향을 충남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환황해경제권에 포함되는 것은 3개시 4개성입니다. 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성 단위보다는 성 하부단위인 지급시별로 세부적인 시장접근이 필요합니다. 같은 성 안에서도 지급시별로 1인당 GDP상의 편차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환황해지역이 중국 전체 소비시장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중국의 주 소비층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80년대생의 아동유아시장, 여성(중국 여성의 경제기여도가 41%), 실버 세대(중국의 15%가 노인, 5, 6년 이후에는 실버마켓이 고급화되면서 시장 성장이 기대됨) 등입니다. 이들은 향유형 소비를 즐기고 수량이 아닌 품질을 중시하는 취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터넷 소비와 결제를 쉽게 합니다. 온라인 소비는 폭발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해외 직접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선호 대상지 2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제품은 디자인과 가격대비 품질이 훌륭하나 브랜드가치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에서 한국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한 제품은 휴대폰, 액세서리, 주방용품, 자동차 등입니다.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편인데,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단 AS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 교역 비중입니다. 충남 중소기업의 43%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부문에서 관세 양허된 20개 품목이 충남의 수출 품목 비중 87.5%입니다. 그러나 ITA 협정에 따라서 이미 무관세인 항목들이 7개 있습니다. FTA 효과를 충남도가 더 보는 것은 충남도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54%로 높기 때문입니다.

충남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구조 다변화와 시 단위로 세부적인 시장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시장조사가 필요한데 개별 중소기업에서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정부기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 조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브랜드가치, AS 보완 대책이 요구되며, 기업 간의 협력 마케팅(공동 브랜드)으로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만에서도 기업들이 '타이완'이라는 상표를 걸고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가 있으므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는 유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Q&A |

Q 안충영 중국의 발전 전략이 제조업,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시장 변화에 대한 치밀한 대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김도훈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김도훈 우리나라 산업의 운명과 연결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중국도 공급 과잉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산업구조조정을 잘 하면 다른 나라에도 이익이 됩니다.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나라들끼리 구조조정의 속도나 계획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중·일뿐 아니라 예전 유럽에서 철강 문제로도 회의체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협의체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Q 안충영 자오유푸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 위해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2) 중국이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대신 비관세장벽을 높여 통관절차, 원산지증명발급에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3) 황해 지역에 중국 어선들에 의한 불법 어로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 해경이 대응하고 있는데 위해시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능한지?



A 자오유푸

1) 행정 효율 측면에서 중국에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몇 년 전 한국 중소기업 협회가 조사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정부의 행정 허가, 승인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해시는 한·중 FTA 시범도시 선정 이후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2)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휴대전화는 항상 수입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중국 경제는 결핍의 경제였고 모든 게 부족해서 외국에서 다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시장이 성장했고 중국 시장을 예전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3) 저는 외교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국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어선들의 조업 활동은 일반인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법을 어긴 것도 있지만 총격은 과도한 대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위해시는 이미 문제가 있는 해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무력 사용은 지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안충영 어족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이나 한국 어민들의 생계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승신 박사님,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소비층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A 이승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현재 주 소비층은 젊은이들과 여성 층입니다. 중국인들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관'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들을 모아서 중국 소비층에게 소개하는 전략입니다.

본세션 번영2

2016년 11월 3일(목)

14:50-16:20
“환황해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회자 | 이장우(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발표자 | 고정민(홍익대 문화예술MBA 교수)
‘태안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자원 활용 전략과 한류3.0’

송위엔팡(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중국의 선진형 통합 공급망 모델의 현 이슈와 미래 발전 경향’

오타니 신타로(한난대학 국제관광학과 교수)
‘한일협력에 기반한 환황해권 문화관광자원 활용 방안’

토론자 | 김영섭(성균관대 디자인대학원 건축학 교수)

문화 콘텐츠 및 관광산업은 21세기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환황해지역은 고유의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한중일의 국제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토론하고자 한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천혜의 관광자연을 갖고 있는 태안군의 강점을 활용하여 태안군을 힐링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광지를 개발할 때 IT나 새로운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세계를 여행할 때 그들의 문화산업을 보게 되는데 문화산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 관광산업을 IT기술과도 접목하여 더욱 심도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한다.
-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구축해봐야 한다. 환황해권 지역의 교류나 역사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



이장우



고정민



송위엔팡



오타니 신타로



김영섭

이장우 저희가 아시아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가 성장의 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북아 지역의 잠재력과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가 먼저,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문화와 관광은 경제 발전을 통한 풍요의 산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문화가 먼저고 경제가 다음인 상황이 많이 연출되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창조경제, 창의성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단순히 관광객 유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이끌어가는 사업을 말합니다. 문화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세 분의 발표자와 한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고정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15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민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태안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관광 통계를 보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서울 중심으로 지내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국내 여행객들은 많지만 해외 여행객들은 거의 없습니다. 태안군은 충청남도 서쪽에 위치해있고 태안군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태안군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군의 강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혜의 관광자연을 갖고 있어서 힐링자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접근성입니다. 중국의 산동반도와 태안군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관광 레저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레저도시도 건설 중에 있고 많은 투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계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 편중도 심합니다. 7, 8월 방문 비중이 60%를 차지합니다. 태안군 유류 유출로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습니다. 재방문도 드문데 이건 태안군과 충남 전체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킬러 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태안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강원도나 부산 같은 곳은 충남에 비해 일찌감치 관광자원을 많이 개발했고 관광, 레저, 스포츠 분야 등에서 많은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국제적 포지셔닝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중국과 관련하여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교류, 문화 활성화, 재방문률 제고, 그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은 여기에 맞춰서 태안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젊고 다이나믹한 태안의 모티베이터를 찾자라는 슬로건을 생각해봤습니다. 이에 따라 Young & Dynamics, Motivator, China Factor, Enterprise City라는 기본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태안은 활기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끌어 들일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태안군의 관광산업에 필요한 5가지 항목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태안군의 모티베이터가 필요합니다. 태안군에 힐링과 관련된 뛰어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의료 관광 자원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태안은 대표적인 축제가 약합니다.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재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관광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교육 환경이 좋으면 자연스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 도시로서의 관광이 필요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관광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보건 특구 지역이라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안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관광 자원과 엮어서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태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축제와 연결시켜 여행 상품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해외 관광객 수요를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안은 중국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관 사업들 간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태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충남 전체와 연관되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위엔팡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심천의 발전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는 관광을 포함합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문화산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방을 여행할 때 스토리텔링도 없고 아름다운 풍경도 없다고 하면 매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 때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는 IT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여행할 때 그들의 문화산업을 보게 되죠. 문화산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 관광산업은 시대의 가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관광산업은 IT와도 접목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스토리텔링을 IT기술과 접목해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천을 예로 들면, 심천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개혁 개방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해도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내 경쟁력이 1위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문화관광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IT 기술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해 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IT기술을 통해서 분석해내고 도출해내고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을 접목해서 고민해본다면 그것은 자족 그리고 순환하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경제, IT를 말할 때 항상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이용하고 있는 애플이나 삼성 말고 중국은 화웨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문화 상품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생태 플랫폼은 자족해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천이 발전하게 된 것은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 중국이 독보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데 있습니다. 중국 내 경제 성장력이 1위이고, 문화나 관광 산업을 보면 화교 세력이 관광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말씀 드리면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개발한 것 중 위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챗을 이용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을 혁신의 각도에서 본다면 역시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샤오미라는 휴대폰은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샤오미가 화웨이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심천의 특허권을 보면 역시 중국 내 1위입니다. 산업경제 발전을 굉장히 순조롭게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혁신적인 생각이 있는 곳이 바로 심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인 혁신적인 사고, 도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사슬에서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플랫폼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플랫폼 그리고 생태환경의 양성 순환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송 교수님 제자이시고 한중 컨텐츠 관련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계시는 김종문 박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잠시 듣겠습니다.

김종문 제가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컨텐츠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송위엔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과 다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한국의 문화 컨텐츠 기업들은 중국과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프로젝트성으로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하나의 정책 수단이나 사회적 교화의 기능으로서 일종의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화산업 투자를 통한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관점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경제 5개년 개발 계획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의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규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책의 변화는 실제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모순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사실상 규제 완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관련 시장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외자에 대한 진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관련 기업들이 조금 더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개방을 통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시켜 중국 문화가 세계 문화로 가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한·중 FTA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정책들을 끌어내어 프로젝트성이 아닌 기업성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한국과 아시아 기업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근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고 마침 오타니 신타로 교수님이 일본 한인 여행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오타니 신타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일 관광 시장이라는 것이 매우 가깝다고 일본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인데 실제로는 주요 도시에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신 적 있는지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정말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은 다소 줄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총 약 600만명 정도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프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 한·일도 활발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방문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체류기간이 3.7일로 짧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방문 지역은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연령대 분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일본 관광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문화유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역시 재방문객이 많습니다. 한국인 재방문객은 60%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행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류기간이 3.3일로 매우 짧은데, 방문지에 있어서는 동경 집중이 아니라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방한 일본객들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방일 한국인 같은 경우 일본식, 온천, 그리고 쇼핑 이 세 가지에서 큰 흥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한국 여행을 해외 여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국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너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원래 관심 있었던 문화나 역사 관련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는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을 보더라도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한일 협동 프로모션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환황해권 지역의 교류, 역사 등 문화 역사적인 이야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교류 역사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본 관광청이 광역 관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환황해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션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소재로 활용하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도시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더욱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한국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걷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에 따라서 복장도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프로모션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노하우를 일본 측에서 배워서 일본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적인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정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일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중국도 당연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 체제를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장우 세 분 토론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종합해 주실 김영섭 교수님이십니다.

김영섭 오늘 세 분 발표자께서 이야기를 달리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하신 고정민 교수님은 지역의 입장에서 환황해 관광이라든지 특히 태안을 중심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뒤 송 교수님은 어떻게 이노베이티브한 것이 관광산업과 연관이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오타니 교수님은 일본의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한일 관계의 교류라든지 역사 여행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이 각자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로컬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20년의 불황을 일본은 견뎌낸 것입니다. 중국은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것, 즉 홍콩과 아키하바라를 합쳐놓은 것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기본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 위르겐 하버마스의 "문화와 산업은 병치될 수 없는 것이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뚜렷한 주관 없이 어떤 때는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다, 어떤 때는 지역 문화 보존을 위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송 교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성장보다 규제 중심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규제 속에서 보존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치시킬까 하는 것이 우리 환황해권에 있는 세 나라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가 문화산업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까 합니다. 저희 충청남도 해안을 중심으로 물론 봐야겠지만, 환황해권에 얽혀있는 이 세 나라가 해안선을 보호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환경벨트로서 해안선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만드는 환경 DMZ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세 발제자들께 하나씩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선 고정민 교수께서 젊은이의 다이나믹을 촉발제로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가, 무슨 축제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송교수님께는 이노베이티브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타니 교수님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코뮤즈라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보충해주셨으면 합니다.

| Q&A |

Q 고정민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태안에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고정민 제가 영 앤 다이내믹스를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강변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축제 장소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축제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축제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관광은 환율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관광객이 최근에 줄어든 것도 환율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요인입니다. 중국이 워낙 관광객이 많으니까 중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즘 관광객의 특성 중 하나는 먹거리 관광입니다. 먹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홍보를 잘 하느냐에 따라 흥행이 갈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가는 이유 중 하나도 역시 먹거리 때문입니다. 태안 반도나 충남 지역도 좋은 먹거리를 개발하고 홍보를 한다면 관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 송위엔팡 제가 이해한 대로 대답드리겠습니다. IT를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발굴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여행한다고 했을 때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증강현실 이라든지 사이버 환경에서 더 완벽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행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여행 상품을 선택해서 갔을 때 정보가 맞지 않는 것이고, 이 경우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오타니 신타로 아까 하신 질문이 일본이 로컬 관광을 중시하는데 에코뮤즈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에코뮤즈는 경제적 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우 마무리 말씀으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 혁명의 시대이고 삼국의 힘을 모아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면서 개발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엄청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상력이 문제라고 봅니다. 충청남도도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하느냐가 21세기 충남 재도약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세션 공생1

2016년 11월 3일(목)

16:40-18:10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자 |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발표자 | 왕리(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개발 및 지구경제연구소 연구원)
‘환황해지구 대기오염 기본구조 및 합작 관리방안 탐구’

김선태(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충남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유 호(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 현황’

윤민호(일본국제금융정보센터 아시아부 특별연구원)
‘미래의 한중일 환경기술협력: 진화하는 고효율 기술과 환경개선전략’

토론자 |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환황해 지역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대기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환황해 지역에 집중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 대기 오염원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 오염의 속성상 이 문제는 환황해를 둘러싼 한중일 3개국과 지방정부의 공동 관심사이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일 3개국 학자와 공무원,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환황해 지역 대기오염의 원인 및 실태,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칭다오 시의 사례를 통해 대기순환시스템이 대기오염의 주 원인임을 밝혀낼 수 있었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부,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효과적인 대기오염방제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 환경오염에 관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주민 자치가 실현 될 수 있고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환경 정책 개선 방향도 제시될 수 있다.
-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국은 고민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석탄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위험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강현수



왕리



김선태



윤민호



유호



박재묵

강현수 환황해 지역의 대기오염 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왕리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의 거시적 배경 구조 및 개선 과정 중 지방정부의 역할을 거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황해 지역은 전형적인 계절풍 지역으로 겨울이 되면 편북풍이 붑니다. 대기는 이런 거시적 대기순환 시스템에 따라 이동합니다. 물론 지역적 특징이 있으나 중국은 6월에 처음으로 여름 계절풍이 풀고 이 계절풍이 양쯔강 유역까지 도달하여 7월이 되면 황해 지역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8월이 되면 화북의 동베이 지역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람은 오염원을 수송하는 매개체입니다. 저희는 이런 거시적 측면에서 오염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여기고 칭다오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칭다오에는 심각한 대기오염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은 몽골과 가까운 중국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에서 기인했습니다. 바람의 이동에 따라 먼지가 서북기류를 따라 차례대로 베이징, 스자좡, 지난, 칭다오와 난징 등 도시에 도달했고 이 도시들의 공기는 외부 오염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대기 오염원은 대기순환시스템을 통해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경지역에서 황사가 일기 시작한 것이 황하유역까지 넘어왔고 화북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몽고의 고기압이 내몽고뿐 아니라 산둥반도까지 넘어와 결국 황하의 유역까지 황사가 도달했습니다. 3D사진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경미한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 궤적을 보시면 북경, 지난, 남경 같은 지역에 서서히 황사의 영향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북경에서 시작해서 청도, 난징으로 오염원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를 통해 저희는 대기순환시스템이 오염원을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고 대기오염 방재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지역은 화베이 평원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내몽고 고원에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황토고원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 사막화나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동쪽은 보하이 만하고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평원 지역에 내몽고나 산맥에서 내려오는 영향을 받아 북서고 (高) , 남동저(低)의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강수량이 적고 모래먼지가 쉽게 일어나 황사 피해를 심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편북풍, 여름에는 동남풍이 성행하고 있고 이 바람을 타고 북쪽 내몽고 신장이나 샨시에 있는 황사나 사막화가 발생하면 편서풍 바람을 타고 북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재 작업을 통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싼베이(三北) 방호림 공정과 베이징·톈진(京津) 모래바람 발원관리공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오염 방재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사 문제가 해결되자 스모그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중화학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남풍이 불게 되면 오염물질이 바로 북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경 스모그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스모그 문제 또한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안을 통해서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대기오염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런 대기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시장,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 보호 제도나 법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관리하여 시민과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간 대화와 협조를 통해 각 지방의 환경보호 협력의 권한과 책임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시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법규 규제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각 방면에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황해는 많은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바다인 만큼 앞서 말씀 드린 오염원 분석과 운영방식의 적용으로 환황해 대기오염 방재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심도 있게 오염원과 공기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두 번째,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사전에 대기의 수송 경로를 파악한다면 스모그나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는 황해의 각 부분이 국가별,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별지역만을 대상으로 오염원의 분석이나 방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시적이고 다각적 연구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오염원은 한 지역 만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각국이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행동협력계획과 한·중·일 환경협력연합행동계획(2015-2019)를 통해 국가간 행동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환황해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각국의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심지역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보호 협력 체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 MOU 체결 등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기업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대기와 관련된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있어 저는 시기적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0년대에 제안했던 방식이 10년 뒤에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현재 틀이나 사고로서는 과격할 수도 있지만 짧게는 10년안에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사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년 전 처음으로 대기오염을 건강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스모그 때만 하더라도 대기오염이 미치는 영향을 호흡기 질환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조기 사망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관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NASA가 제공한 전 세계의 이산화 질소 농도를 보시면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의 동부 지방에 대기 오염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충남의 대기오염 문제 원인은 화력발전소에 의한 가스상 물질보다는 입자상 미세먼지로서,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영향검사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 의한 것이라는 이슈가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충남 지역이나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세워진 명분은 강원도 탄광이 폐쇄되고 연탄 사용이 줄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탄을 사업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 발전 배출량의 40%이고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측정망을 보면 충남이 전국의 4.2% 였습니다. 충남의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은 영흥 화력발전소에 비해 매우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전국과 충남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PM2.5는 오히려 어느 계절에는 서울보다 높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은 충남화력발전소에서 하고 관리하는 세금은 수도권에서 쓰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기오염 문제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기오염을 주민의 건강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출원 관리에서 영양 중심의 관리로 가는 것이 전세계의 대세입니다. '배출원(Emission)' 중심에서 '수용체(Immission)'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OECD에서 90년대에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배출허용량기준을 우리나라는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고정된 배출허용기준을 가지고는 지속적인 환경관리가 어렵습니다. 주변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사업장, 주민, 행정부가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주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틀이 되고 이것이 유럽의 환경 제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환경관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환경 기준과 평균 농도 기준을 가지고 대기관리 환경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평균 농도보다 낮다고 정말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환경관리는 지역적 차원, 미세한 측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90년대 이후 환경정책이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90년대식 기준을 적용한다면 발전이 어렵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충남에 있는데 대기오염방제 예산의 반은 수도권이 씁니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충남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전국에서 걷어서 수도권에 사용하는 이런 차별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화 반월 지역 사업장의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이 배출하는 오염원의 기준량을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5에서 10으로 오염이 증가되었다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환경오염에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04년 시화호와 시화 반월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치의 의결 및 집행기구를 만든 일이나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개발의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하여 대기환경개선 이행에

활용한 사례 등은 더 이상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배출량 제한을 넘어서 자발적이고 순환적인 방식의 환경오염개선방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의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갈등은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사회의 자치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대전 대덕구 쌍동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민 행정구가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주민자치기구를 만들어 그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빗발쳤지만, 대부분의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업장의 실무 부서에서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업 내 설득력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민관산학간 자발협약을 만들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은 그 실적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10여년 이상 상호 신뢰 속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 결과, 기업의 환경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많습니다. 서해안 오존, 먼지 문제, 산업단지문제, 서산, 대산, 당진 화력발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자면, 대기오염의 50%의 영향은 중국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50%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오염물질을 줄인다면 중국에서도 자연스럽게 공기오염을 줄여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서로간의 바람직한 협력방안을 만들고 지혜와 기술을 공유해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민호 일본의 관점에서 중국발 환경문제, 저희가 모르는 일본에서 발전하고 있는 화력발전 기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파사고로 인해 심한 전력난을 겪었습니다. 30% 전략소비를 하는 원전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발전시키지 못한 30%를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화력발전소를 다시 세워 남은 전력을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원을 내는 원료로 중유, LNG, 석탄 등이 있는데 이 중 효과가 가장 빠른 것은 LNG입니다. 이것은 중동에서 와야 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중동사람들이 값을 올려 일본에서 실제로 2012, 2013년 경상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LNG를 포기하고 석탄을 선택했습니다. 97년 교토의정서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일본에서 큰 하락세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화력발전소를 멈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실시했고 대신 원자력 발전소를 더 세우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이후 화력발전소 테마가 대두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지리적 요건이 매우 미묘하고 비슷합니다. 입지적 조건으로 편서풍이고, 바꿀 수 없는 지구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부는 바람이 한국, 일본으로 갑니다. 두번째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PM2.5,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문제, 경제발전, 자동차 매연, 황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화력발전소가 대기에 20%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12,13년 북경에서 아침 출근하는 시간의 매연 때문에 북경에 있는 일본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거나 출근을 자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15만명 정도 됩니다. 일본은 15만명의 자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편서풍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와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관계가 나빴거나, 한국과 중국 관계가 나빠지면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지 못했고 올해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올해 수뇌회담에서 환경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 한국, 일본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거의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직면한 문제에 모범적인 모델이나 정답은 일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탄을 우리가 다시 주시해야 할 이유는 어느 에너지 자원에 비해 세계의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크고 또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을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이 되는 전원을 만드는데 가장 안전한 것이 석탄과 원자력 밖에 없습니다. 풍력, 태양력과 같은 에너지원은 제약이 많습니다. 일본은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 화력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본 바탕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석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여러 면에서 진보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효율이 높은 것인데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일본의 발전효율이 45-48%로 가장 높습니다. 중국도 화력발전 기술력이 뛰어난데 일본, 중국, 미국이 3대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나라들이 가장 많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탄 개발에 있어서 일본 모델을 쓴다고 한다면 배출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효율 석탄 활용에 좋은 모델이 바로 일본입니다. 요코하마의 이소고 발전소는 2002, 2009년에 과거 요코하마 발전소를 리뉴얼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곳에는 두 개의 보일러가 있는데 하나를 돌리면서 다른 하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2009년에 완벽한 공해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석탄을 호주에서 갖고 올 때부터 완전 밀폐방식으로 포장해서 가져옵니다. 공기압력식이어서 분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초인계성, 선진인계성이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일본의 가장 완전한 공해 방지 시스템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석탄은 오염의 기준이 되지만 또한 주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한·중·일 지방정부와 경험 노하우가 서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직접적 이해 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호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에서 어떤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종시민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 언론에서 환경부에 전화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왜 중국에 항의를 안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왜 못할까?'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남아지역, 유럽, 미-캐나다의 국경 대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트레일 제련소 사건이 환경문제로 인해 배상 사례가 발생한 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수도권 대기 대책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 충정도발 대기오염문제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충청 기사를 확인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충청발 수도권 대기오염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전, 충청 지역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국내오염, 대기오염, 초미세먼지에 따른 국내 대책과 월경선 오염에 대한 항의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선 항의를 해야 할 구체적 시기가 온 것 같지 않고 이 월경선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책임-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연성 협력(Soft power)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인 발생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연성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대세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하는 대기오염을 주로 논의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는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그 동안은 협력 기제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2014년에 대기오염정책대화를 삼국 장관이 합의, 과장급들이 대기 현황에 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한·중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단이 북경에 사무소를 만들었고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발생과 오염 원인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동하는지 연구하려고 합니다. 작년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중, 한·중 양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중국 35개 지점, 한국 3개 도시의 대기 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만이 노력해서 되는 합의가 아니라 중국의 협력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최근 2-3 년간 이러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 70,80년대와 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 아직은 민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APEC Blue'(스모그현상이 심한 중국에서,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기간 동안, 당국의 노력으로 오랜만에 나타난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뜻함)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한데 중국이 더 이상 환경오염에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 중국 13차 5개년 계획에 환경 부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계획에서 중국이 10년 동안 지키겠다는 지표에 대기와 수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스스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2015년 개정해서 규제를 강화했고, 올 여름에 중국 환경부 산하 대기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스스로가 환경협력, 기술협력을 자연스럽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정확히 중국에서 오는 게 얼마인지, 미국 NASA와의 협력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오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 항의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 몰라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충남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력발전소가 일반 대중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준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과 연관된 화력발전의 배출 시설과 주민과 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OECD에서 한국이 이대로 추가적 노력이 없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3배 이상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월경선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화력발전소에 대한 문제도 있는 만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A |

Q 대기오염측정소가 전국에 몇 개인지?

A 김선태 전국 350개중 충남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Q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대기가 좀 더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 정부는 30-40%의 미세 먼지 영향이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어떤 생각인지.

A 왕리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산화황, pm2.5 농도가 낮아지는 것도 엘니뇨 현상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정부는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 이산화탄소를 규제했고, 13차 5개년 계획에서 더 엄중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조사조도 만들었고 환경관련 모니터링 조직,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산화황, 영국은 스모그 등 세계 선진국들 모두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더불어 환경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중국 역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환경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에게 너무 강한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문화권을 가진 국가로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김선태 봄철에는 위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가을이 되면 위에 찬 공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봄철에 사막지대에서 바람에 의한 날림도 있지만 이런 대기의 흐름 때문에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대기가 좀 더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의 기본 컨셉으로 자발적, 지속적인 개선, 이행 성과 평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환경평가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만 20년간 운영되면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파리 협정의 기본 틀은 자발적으로 5년마다 다시 개선 목표를 써내고 5년마다 이행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앞서 말씀 드린 세 가지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술력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기술 자체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와 맥락 속에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가치적 문제가 우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측정 조사는 일차원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충남도에서 이런 노력이 이미 보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운동이 도입된다면 효과적으로 중국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윤민호 석탄 화학에 대한 일본의 상황이 충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석탄 화력은 이제 증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신 원자력을 키워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효율성이 높은 석탄 화력이 가능하다면 우리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탄 화력을 증설하지 않으면서 원자력을 증설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석탄 화력이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화력발전 비용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상황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예로 충남에 온양 온천이 있으면 마그마가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기본기술을 아시아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이 왜 원자력 발전 외에도 석탄발전소를 놓지 않고 있는지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석탄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줄이는 방안을 2030-5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상당 수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축약적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염방지장치는 규모가 커야 효율성이 높다는 게 포인트라서 대형발전소가 생겨야 효율이 큽니다. 일본에서 가장 좋은 사례가 된 것이 11만km정도 부지의 발전소를 허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세션 공생2

2016년 11월 3일(목)

16:40-18:10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도전과 과제”

사회자 | 유용구(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발표자 | 우치다 히로히사(도카이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
‘수소에너지 사회구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김준태(공주대학교 교수) ‘충남 태양광 산업의 정책적 방향’

임철호(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개발 현황’

토론자 | 노상양(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파리기후변화협정이 타결되어 2020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 시행이 요구되고 있어 지자체 단위에서도 지역 여건을 감안한 목표 및 이행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충남은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밀집하고 있어 산업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2020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절약,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여 지방 정부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 방안 별 정책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최적화된 해답을 탐색해본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환경이라는 것이 가정, 학교, 직장, 문화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요인을 뜻하는 만큼 인간 지향성을 가진 과학에 근거해 환경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충청남도는 제조기반이 좋지만 국가적으로 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인한 내수 약화, 대외변수에 의한 영향력, 가격 경쟁력, 기술의 문제 등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유럽은 2030년부터 환경정책으로 내연성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현대자동차는 해외 수출을 고려해 수소, 전기자동차 개발 연구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의 부족으로 발전이 더디고 있다. 국내에 10개밖에 없는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등 국내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용구



우치다 히로히사



김준태



임철호



노상양

유용구 환황해권 여러 아젠다 중 에너지 분야에 관한 세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중·일은 같은 대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기에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정책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민간영역 산업보다는 정부주도의 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수소는 산업적으로 보면 화석연료보다는 경제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태양광, 수소 발전(수소 자동차)입니다.

우치다 히로히사 일본의 에너지정책, 특히 일본이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원자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5년전에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지금 동쪽의 경우 지형이 5미터 정도 이동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1주일에도 자주, 1~3개월이면 거의 모든 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재해라는 것과 에너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고에 일종의 경종을 울린 역할을 했습니다. 원자력이란 무엇일까요? 원자력이란 수소같이 가벼운 원소가 융합 되려는 성질이며, 우라늄은 가벼워지려는 성질입니다. 핵 분열, 핵 융합은 원자력의 기본 반응입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 핵무기에 사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병원에서 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농업, 특히 우주개발에 유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원자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자력이 곧 원자력 발전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원자력 사용률이 20%, 화석연료는 56%입니다. 이건 향후 예정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원자력이 20%나 차지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일본의 총 전력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0-70년대에 걸쳐 많은 석유를 수입했고 그만큼 엄청난 공해가 일어났습니다. 다마가와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시가 있는데 1960년대에 공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가와사키 시는 공해문제를 극복하였습니다. 시 차원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바 기업이 가와사키 시 출신입니다. 이 기업은 300명 정도가 재난으로 대피했을 때 쓸 수 있는 독립적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앞으로 수소 에너지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연료 전지 뿐만 아니라 수소를 활용한 여러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2020년을 경계로 해서 엄청나게 추진될 것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로 지구의 녹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물이 성장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 활동의 중지로 인한 지구의 한랭화를 걱정하는 과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원료로 생각하여 수소와 함께 새로운 유기재료(약)도 만들어내는 연구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가나가와 현에서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안에 100여곳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동형 수소충전소도 있습니다. 수소충전소와 같은 시설의 증가가 우선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소하면 연료전지만 떠올리기 쉽지만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수소 저장 합금 기술에는 수소를 많이 빨아들이는 금속이 있는데, 금속에 수소가 흡수가 되면 열을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수소를 배출하면 주변이 시원해 집니다. 이 반응에 따라서 주변이 냉각이 되면 고밀도로 저장이 가능해 집니다. 후쿠시마현에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분해해 사용할 경우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전기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실현해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대형 비닐하우스에서는 여름에도 딸기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어업 비즈니스에서도 수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경이란 건 우리 주변의 모든 요인을 뜻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문화, 전통 커뮤니티, 종교, 나라 그 자체, 경제, 정치적인 시스템, 인간 이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은 인간 환경(Human environment)으로서 엄청난 다양성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을 고려한 과학(human environment conscious)을 지향해야 합니다.

유용구 원자력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원자력을 쓰지만 안정성, 환경 측면에선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수소 에너지를 떠올리면 수소 자동차만 생각하기 쉬운데 수소 발열 냉각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을 말씀해주셔서 신선했습니다.

김준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측면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에너지 정책에선 충청남도도 지자체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화, 에너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희망에너지 실현', '미래 대응 에너지 신사업 육성'과 같은 조금 새로운 정책들도 있습니다.

공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깊습니다. 물은 오염되면 안 마시면 되지만 공기는 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특히 서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가 공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발전소 시설 등은 전력량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건축공학을 기본으로 태양광을 연구하고 있는데 충남은 태양광 개발에 늦은 편이지만 기업을 통한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잘 활용한다면 상당량의 에너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공급망에 대한 연관효과가 높아 산업파급효과가 크며, 최근 응용제품 시장이 형성되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내에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거쳐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분야 통합 전략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CT(정보통신기술)나 금융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통적 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은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 2차적인 특징을 지닌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솔라 루프를 자동차에 제공하면 태양광 발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국제적 이슈를 몰고 있는 테슬라 회사도 태양광 발전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자가 공급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15년 PV 효율성과 시장 현황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이후에 2014년도까지 다른 산업에 비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의 국가별 비중이 일본 24%, 미국 16%, 중국 24% 이지만, 한국은 2%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규모로 봤을 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태양광 보급의 성장 동력은 정부 차원의 보조가 59%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양광발전 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하자면, 충남은 태양광 발전 면에선 느렸지만 정부의 신 산업 발전으로서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제조 기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몇 가지 리스크를 조심한다면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약점을 꼽자면, 지역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내수의 약화, 대외변수에 의한 영향력입니다. 더불어 가격 경쟁력, 기술 기반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남의 지역적 기반을 고려해보면, 첫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응용제품에 대한 신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창업 혹은 제품개발에 있어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제조기반을 떠나서 기술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 응용제품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충남의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몇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이 이러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적 혜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유용구 산업의 발달에 따라 태양광이 많이 대중화됨에 따라 산업 육성과 보급에 대해 모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임철호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개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자동차는 선택의 영역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환경 인식의 변화로 수소자동차의 의무적인 판매를 강화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법규가 고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비를 규제하고 유럽은 CO2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또한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의무적으로 수소자동차를 팔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경 즈음에는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내연성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독일은 2030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계 흐름 앞에 현대자동차가 파는 내연성 자동차의 경쟁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1960년대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 가솔린, 디젤 엔진을 들여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내연성 자동차를 해외에 팔고 있지만 앞으로 연비 규제와 소비자를 위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오닉(IONIQ)이라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동일한 자동차에 세 개의 다른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소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덴마크가 전기 수요의 50%를 풍력 생산으로 채우는 것을 202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수소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싼 IX35는 현재 1,000 대 정도를 3년에 걸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인프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럽-미국 순으로 많이 팔렸는데 전기자동차가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2020년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 개발을 하려면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연료에너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에서 가장 춥고 뜨거운 지역에 가서 주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자체가 수소 폭탄이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 검증을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만약 수소 탱크에 불이 붙으면 밸브가 저절로 잠기고 수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차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디젤버스에서 CNG버스로 이동하였는데, 사용해 본 결과 오염물질은 저감되나 배출량은 비슷해서 다시 실효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실용화 사업을 하고 있고 충남 내포신도시에는 수소충전소 1기가 구축되었습니다. 수소를 생산해내는 방법은 많은데 일반 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부생 수소, 메탄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현대제철 등 제작소가 많고 여기서 부생수소 2만 톤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무공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수소 충전소가 10개밖에 없어 (일본의 1/10) 기술은 충분한데 인프라가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이동의 수단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전력 변환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난지역에서는 비상 전력 공급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전기 공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려면 화학적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수분이 필요해서 가습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공기를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CO2나 미세먼지를 차가 이동하면서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상양 수소 저장을 통해 딸기 재배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도에서 태양광 발전과 부수적 융복합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료 자동차 개발은 빨리 했지만 인프라나 보급 여건이 좋지 않아 빨리 시작한 만큼의 이득을 얻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충청남도는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19.9%, 수요는 14%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11월 4일

발효되는 파리 협정에 의해서 11월 7일부터 당당하게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중앙정부가 큰 틀을 짜고 지방이 따라갔지만 지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엿보입니다.

일본은 ICT를 통해 산업단지, 가정, 발전소 등등의 융합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충청남도는 인접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울산은 울산 산업 단지를 통해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농협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시범 사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11억 명이 전기가 없다고 합니다. 29억 명이 그린 에너지 없이 생활을 합니다. 솔라 펌프(판넬과 펌프가 결합된)를 이용하면 아프리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간의 융합, 설비간의 융합, 계층간의 융합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 에너지 취약층 없이 에너지 복지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치다 히로히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수소 시범 단지로 구축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치다 히로히사 후쿠시마는 아직 방사능 수치가 높습니다. 아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연구소를 억지로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어떻게 저장할 지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수소 합금의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을 쓰고 싶어하는 생각은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그날부터 논, 밭은 아주 버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일도 못하고 그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후쿠시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방사능 수치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 둘 다 챙겨서 봐야 합니다.

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특별세션2

2016년 11월 4일(금)

09:30-11:00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비전 2030"

사회자 | 안정선(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발표자 |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젠더의제와 정책과제'

장용핑(전국부녀연합회 산하 여성연구소 명예연구원)
'양성평등 기본국책 및 중국 특색의 성별 주류화 추진'

센다 유키(일본 무사시대학 사회학부 교수)
'아베 정권의 '일억 총활약 사회'와 여성정책'

토론자 | 김양희(젠더&리더십 대표)

UN은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Post 2015 이후 각 국가들의 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한 바, 향후 젠더 관점이 통합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 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공존과 연대, 발전을 위하여 각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젠더 의제의 추진 전략과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고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한국과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은 그 발전 정도에 비해 젠더 평등과 여성 인권 분야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
- 세 국가 모두의 여성 정책이 이론적인 데 그치거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황된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실시가 필요하다.
- 종래 국가의 국가 간의 외교, 안보 문제와 같은 전통적 갈등의 틀을 깨고 인적 교류를 쌓고 연대함으로써 젠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정선



이나영



장용핑



센다 유키



김양희

안정선 오늘 의제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젠더비전 2030'으로 한중일 삼국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번영과 상생'이라는 슬로건 하에 주요 키워드가 '평화, 번영, 공생'입니다. 그간 정부와 민간의 영역에서 발전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성별 균형의 관점을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오늘날 세 국가들의 지표들이 양극화되었고 심각한 성별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의 재개념화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성을 젠더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1995년 북경 회의 이후 새천년 발전목표, POST 2015에서 제기된 젠더 의제의 독자적 목표를 포함한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지표들이 제대로 각 나라에서 구체화되는 데 있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중일의 주요 학자들이 모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에서 젠더의제 2030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충남이 올해 양성평등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천적 과제로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남도민과 정책 영역의 역량, 정부와 민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시스템 등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낙담하기보다는 오늘 이 논의를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충남 양성평등 2030에도 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나영 지속 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하고 있느냐? 거기서 주로 젠더 의제란 무엇인가? 그 실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과제와 정책적 대안까지도 이야기하도록 주문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짚은 뒤 한국의 여성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라는 것이 1995년 북경행동강령과 젠더 의식이 없다고 비판 받아 온 새천년개발목표를 연계한 전세계 페미니스트의 열망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SDG에 대한 이해와 실현에 페미니스트들의 열망이 녹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선 북경행동강령의 개념이나 의의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MDG의 내용 및 한계도 말씀드리고 그 이후 SDG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SDG에서 젠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소개한 후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표를 만들고 구현하는지도 비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북경행동강령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아젠다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 사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경행동강령은 12개의 주요 관심분야, 총 6장, 361항을 선정하고 이들 각 분야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구조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각국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가 각 주체 별로 실천할 향후 활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엔사무총장은 이행사항을 매년 유엔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입니다. 역량 강화란 한국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번역이 되는 용어이지만 이 글에서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역량 강화로 번역했습니다. 임파워먼트의 핵심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전적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과 빈곤, 여성과 경제,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 여성과 무력분쟁,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과 여성, 여성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과 매체, 여성과 환경, 여아동과 소녀 등 12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결국 여성 역량 강화는 단순히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중심적인 조건이며 평등, 발전, 평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지속적 발전의 기본적 전제입니다.

둘째로 북경행동강령과 새천년개발목표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2001년 유엔총회에서 국제개발목표인 MDGs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중 젠더 관련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평등 2)빈곤, 기아, 질병에서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젠더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3)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개의 주요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목표 21개, 지표 6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젠더 관련 지표는 젠더 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모성보호증진의 두 가지입니다. 모성이라고 하니 꼭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권리를 모두 포괄합니다. 8개의 주요 목표 중 젠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가 두 개밖에 없는 것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젠더와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무임금 보살핌 노동, 자산과 재산에 대한 여성의 제한적인 통제, 임금 차별, 청소녀들의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 공적·사적 결정 과정에의 불평등한 참여 등의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데 MDGs가 실패했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트2015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젠더 평등과 여성세력화를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목표로 하되, 기존의 젠더뉴트럴하다고 볼 수 있는 목표에도 젠더 의제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페미니스트들이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개별국가의 노력을 점검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 2012년입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9월,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담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해 발생된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용되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인 목표들과 과감하고 혁신적인 세부이행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5대 행동영역으로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 제시되었으며, 빈곤 해소가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지구적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제시한 모든 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은 인권의 실현과 젠더 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핵심 축인 경제번영,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자 하는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SDG의 다섯 번째 목표인 젠더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SDGs의 5번째 목표는 젠더 평등을 쟁취하고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 역량강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여성에 대한 물리적, 성적 폭력은 물론, 무의식적 편견, 비의도적이고 비가시적인 장애물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비의도적이고 비가시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SDG의 다섯 번째 목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더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라는 5번째 목표의 구체적인 세부 목표 9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차별 형태 종식, 둘째, 공사영역 공히 성적 착취와 기타 착취, 인신매매를 포함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 셋째, 조혼과 성기 절단 등 아동에 대한 모든 유해한 행위 종식, 넷째, 공공서비스, 사회적 기반 및 사회보호 정책 제공, 국가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가족과 가구 내 공유된 책임성 재고 등을 통해 무보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다섯째, 정치, 경제, 공공 영역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수준에서 리더십 보장을 위해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 보장, 여섯째, ICPD와 북경행동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성 건강 및 재생산의 건강,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일곱째, 여성들의 경제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동산 및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한과 통제권,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유산과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개별 국가의 법률을 개정할 것, 여덟째, 여성 역량 제고를 위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기술의 사용 증진, 아홉째, 젠더 평등과 모든 영역에서 모든 여성 및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전한 정책 및 강제적 입법안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켜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이 어떤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 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경제 지표로 나누어 2년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했고 이 중 5번째 목표는 '남녀평등' 항목 하에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관리직 여성비율 세 가지 지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이 지표들 자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영역도 문제입니다. SDG의 관심 분야인 빈곤 문제에 있어 성별 분리 통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별 분리 통계 제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젠더 관점이 전무합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젠더 전문가는 부재하고 평등 관련 전문가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흡한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유엔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들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통해서 한국의 여성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세계 젠더 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입니다. 한국은 최하위 수준의 젠더 격차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116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남녀 간의 격차가 심하게 난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우리보다 여성의 처지가 열악하겠지만 남녀 간의 격차는 우리보다 적다는 뜻이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지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참여, 정치적 참여, 교육, 건강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교육이나 건강 부분에서는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부분에서는 남자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지표가 좋습니다. 가장 나쁜 지표는 경제적 참여, 정치적 참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입니다.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중국은 99위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방에 들이는 비용에 비해 젠더 지수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관습적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50%에서 유지되고 있고 30년 동안 10%도 늘지 못했습니다. 실질 여성 고용률도 상당히 낮습니다. OECD 국가별 성별임금격차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평균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대체로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정규직의 1/3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남성은 전 생애 단계에서 대체로 정규직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넘어가면 거의 비정규직으로 일합니다. 여성경력단절을 뜻하는 M자형 곡선은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지표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의 출산/육아휴직 사용률도 참담한 수준으로 낮습니다. 관리직 여성 비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심지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리천장지수도 당연히 전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터키나 일본이 있습니다. 최근의 지표인데 창구에는 여성이 대부분인 금융사들의 임원 중 여성 비율만 따로 떼어서 보니 2%에 불과합니다. 성별 빈곤률을 보면 한국은 아웃라이어 취급을 받아 표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지표도 굉장히 나쁩니다.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 비율도 여성이 높습니다. 일상의 문화 속, 대중매체, 재현물에서 속속들이 배어 있는 여성비하, 차별, 혐오 문화가 심각합니다. 대학 내에서 남학생들의 여성비하적인 단체SNS 문제도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하자면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높은 성별임금격차,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 경력단절, 유리천장, 빈곤의 여성화, 여성성상품화, 대상화가 너무 심각하고, 이것이 보이는 차별뿐 아니라 비가시적 차별과 혐오 문화까지 연결이 돼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DG지수를 세 가지로 관리하면서 마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 아니면 이제 역차별이 문제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들은 대체로 보면 아동수당을 제공하겠다는 것들인데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전 세계 합계 출산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애를 키울 수 있는 사람만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한심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차원, 특히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데에 많은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의심이 남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서구처럼 WID(Women In Development)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로, 그리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로 이동해 왔다고 하지만 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전혀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용어가 단순히 정책적 용어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관심은 부족하며 실천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젠더 불평등이란 특정 성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특정 성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압과 착취를 강요 받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차등적, 차별적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고 동아시아는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장용핑 여성의 차별에 있어서 포럼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 여성의 지위를 제고하려는 정부 기제의 회고와 분석입니다.

여성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본 결과 여러 국가 정책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1) 국가 기구의 마련 2) 법률적 지원 3) 국가 행동계획 4) 젠더의 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현존하는 문제와 제안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여성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4차 여성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기제에서 여성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 평등을 촉진하는 국가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계 여성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1) 90년대 초반 국무원에 관련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의 성격이 승격되었습니다. 2)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발언이 없었는데 95년 이후에는 정부 정책에서 여성 정책을 진지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3) 중국 내에서의 행동강령을 반포했습니다.

국가통치모델 변화, 성평등 수요에 따라 전국인민대표 중국정협여성업무기구 여성연합회 등을 구성해 성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인대 여성업무기구를 보면 내무사법기구 내에 설치된 부서가 있어 입법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여성연합회의 위원을 통해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무원 여성아동업무위원회는 직능 기능이 한층 개선되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위원회의 업무가 체계화되었습니다. 국무원이 중앙정부라면 지방정부마다 관련 위원회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성 문제가 수평/수직적으로 협동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성연합회는 당과 일반 여성을 잇는 교량이자 유대입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정부가 책임져 여성연합회를 조직, 협조,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업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연합회의 가장 큰 역할이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을 잇는 교량이라는 점입니다. 입법에 참여할 뿐 아니라 기층 정부에서도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의 재취업문제, 창업, 교육서비스지원, 피해여성 권익보호 핫라인 개통, 가정과 일 양립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책연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평등과 관련된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재 양성 규정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회의 노력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노력을 통해 지금의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이후 중국의 성평등과 여성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여성연합회는 중국의 다른 연합회(여성관련)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연합회는 가장 큰 여성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법 집행에 참여할 뿐 아니라 기층정부의 연합회와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체계에서 본다면 중국에서는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헌법과 여성권익보장법 두 가지입니다. 성평등의 헌법 원칙은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가운데 구축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여년 동안 결혼에 대한 것, 노동계약법, 대출 정책 등 여성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정책 외에도 여성 평등을 강조하는 정부 차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법률적 차원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념들이 강조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사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세 단계를 거쳐서 중국 정부의 행동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국가가 이런 정책을 마련하며 국제사회와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발맞추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이런 행동강령을 통해서 보다 많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성발전요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 정부 책임을 중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한 11차 5개년 계획에는 여성 아동의 권익보호를 한 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여성발전과 아동발전을 구체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 여성 발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녀평등기본국책이 기본 국책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점차 경제사회 발전 각 영역에서 기본 준칙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정책 추진 내용을 심사평가하는 성평등 법률정책 심사평가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기제를 마련하면서 중국이 겪은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기구의 권위와 협조가 부족하고, 입법과 결책 중 사회적 성별 시각의 영향이 유한적이며, 여성발전과 성별평등의 사회 발전 속에서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성별 주류화 책략과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센다 유키 한국에서 8월 말에 조사를 했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을 페미니스트들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두 달 후 일본에서 “헬일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도 공통되는 점,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젠더갭지수를 보면 중국이 99위로 일단 2자리수 순위에 있습니다. 일본이 118위 한국이 123위입니다. 일본에서 이걸 보도하면서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다, 한국이 없었으면 일본은 아프리카와 아랍 나라들 사이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될 뻔했다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아까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율이 낮다고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가장 낮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워낙 장수하기 때문에 건강 분야에서 40위를 차지하며 약간 평균을 올렸을 뿐입니다. GDP를 보면 2위, 3위, 11위이며 세계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을 한중일 삼국이 점유하는데 그 가운데 젠더갭지수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베노믹스와 여성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1단계라는 것을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베는 아베 신조 수상의

이름이고 노믹스는 이코노믹스, 경제를 뜻합니다. 즉 아베의 경제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정권은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경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 주요한 정책으로서 1단계에서는 '세 개의 화살을 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네오리베럴리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 활용이라고 말하면서 노동력의 규제완화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우머노믹스(Womenomics)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일을 함으로써 여성의 새로운 니즈를 끌어올려서 비즈니스를 성공시킴과 동시에, 여성이 돈을 가짐으로써 아이들이나 교육과 같은 자잘한 부분에서 소비의 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여성이 열쇠가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활용되지 않는 노동력은 두 가지뿐으로, 1) 외국인이민자 2) 여성인데 후자 쪽이 국내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최초의 세 개의 화살입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 후에 호황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마지막으로 규제완화를 해서 사업을 자유화함으로써 국내총생산 성장률 3%를 지향한다고 떠들어왔습니다.

"여성이 빛나는 일본"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빛나다'는 영어로 Shine이고, Shine을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시네', '죽으라'는 뜻이 됩니다. 여성들은 '빛나라' '빛나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는 이 이상 열심히 일할 수는 없으니 '죽으라'는 뜻이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민당 홈페이지의 아베노믹스 설명에 나온 그림을 보죠. 두 명의 여성이 있는데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일하는 사람, 또 한 명은 애가 둘이 있고 육아하는 어머니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동일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이를 둘 낳아 육아까지 하라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여성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를 낳아 길러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지닌 힘은 일본 최대의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의무라는 것을 기업에 부과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6.9%에서 8.3%로 늘어났으니 대성공이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일이냐 가정이냐, 아니 일도 가정도"라는 식으로 두 사람 몫을 하라는 식의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여성들은 두 명 분의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걸려 있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육원의 정원을 늘려 아이들을 한 곳에 욱여 넣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보육과 복지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복지 서비스 부문을 규제 완화해서 수요를 만들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특징입니다. 이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육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을 지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했는데 지금은 주식회사가 만드는 등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일과 육아의 병행'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육아휴직은 3년 동안 할 수 있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애가 둘이면 6년 동안 경력이 단절됩니다. 육아휴직을 내실화시키는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정책의 근거가 세 살까지는 보육교사의 급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살까지의 육아를 어머니에게 맡기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유인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2012년 자민당 종합정책집인 J파일 2012를 보면 전통적인 가족이나 지역의 유대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사회전반의 다양성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활용과 전통적 가족과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2020년까지 관리직 및 지도적 지위의 여성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2030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의 관리직 비율이 8%를 약간 넘습니다. 채 10%도 안 되는데 4년 안에 30%까지 올리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단계에 들어섰다는 아베노믹스는 1억명이 모두 활약하는 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해소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1억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다 활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라기보다는 복지정책을 내실화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입니다. 그 중 하나가 '희망을 낳는 강력한 경제'라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GDP 600조엔을 목표로 하고, 안전한 사회 보장을 위한 양로원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토목행정입니다. 복지직에 대한 대우는 그대로입니다. 보육사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기 아동의 수는 줄 수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사 급료를 2% 인상했습니다. 한 달에 5천 엔에서 1만 엔입니다. 그나마도 복지직은 이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지금의 정권이 팔고 있는 꿈입니다. "희망 출산율 1.8"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결혼하고 싶은 미혼 여성이 89.4% 있고, 그 여성들이 아이를 2.1명 낳고 싶어 하고, 지금 결혼한 부부는 2.07명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이를 전부 더하면 1.8이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간단한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와 80년대 말의 출생률을 비교해 보면 1.81에서 1.41로 떨어졌습니다. 전업주부 세대에서 맞벌이 세대로 세대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여성이 희망하는 라이프 코스는 전업주부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으로

변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미혼률이 급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체가 되는 여성의 수가 줄어서 출생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출생 수 자체는 계속 줄었습니다. 맞벌이와 전업주부 가구의 추이는 2000년을 넘기면서 완전히 맞벌이 세대가 우위에 서고 전업주부 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생애 미혼률과 미혼률의 추이를 보면 남성의 다섯 명 중 한 명, 여성의 열 명 중 한 명이 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의 미혼률은 남성이 거의 반수이고 여성도 세 명 중 한 명입니다. 연 수입 별로 나눈 기혼률의 경우, 연 수입이 600만 정도부터 결혼할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00만 이상 연 수입을 가진 사람이 많이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부인이나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이상적인 라이프 코스를 볼 때, 한때는 3할 이상의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2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생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3할,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다 자라면 복귀하고 싶다는 사람이 3할 정도입니다. 즉 6할 이상의 여성이 어떤 형태로든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로 전업주부가 되리라고 추측되는 사람은 1할도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할 정도이며, 약 4할 정도가 육아 후에 복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 3할 가량이 이대로 결혼하지 않고 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까 여성이 희망하는 라이프코스가 변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기대하는 여성의 라이프코스가 변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4할 정도의 남자가 부인이 전업주부이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12%로 줄었습니다. 3할 정도의 남성이 여성이 계속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른 후에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4할입니다. 즉 7할 정도의 남성이 부인이 계속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실히 느껴져서, 전업주부 부인을 얻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겠다는 남학생은 내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엘리트 여성이 결혼상대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노동시장에서 육아 후 여성의 복귀를 증진하기 위해 세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육아의 도움을 받고, 반대로 노인 돌봄도 하면 win-win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내 주변 여학생들에게 말하면 '그러면 더더욱 결혼하기 싫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게 젊은 여자들에게 결혼 촉진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결혼하는가'에 대한 심의회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곳에서 맞선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미혼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책은 그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성활약추진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한 법인가 하면 여성 활약이 어떤 것인지 현상을 분석하는 일을 대기업에게 의무화하고, 그를 위한 행동 정책을 만들고 여성 활약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기도 하는 일입니다. L스타 인증마크라는 것을 만들어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L은 Lady, Labour, Lead, Yell(엘)에서 왔습니다. 이게 주요한 정책이라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정선 동북아는 유사점이 많은데 다 슬프다는 것입니다. 동북아가 여성의 힘으로 결집될 만큼 성주류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발제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땐 오늘과 같은 슬픔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게 아닌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국가가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 중심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발제자를 늘려서 충남 젠더 비전 2030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슬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세 나라들이 갈등하고 외교적으로 안 풀리고 있지만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반대는 폭력이고 폭력은 차별에서 기인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나라나 인구의 5:5를 이루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지지 않다는 것은 어떤 차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젠더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국의 정책은 국제규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나영 교수님께서 SDG, MDG를 활용해 국내정치도 탄력을 받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SDG는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MDG에서 패러다임이 변경된 것입니다. SDG 지표는 아직도 치열한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채택이 되면 우리나라도 SDG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시 대통령직속이 되어야 하고 이때 여성계가 관심을 가지고 젠더 지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 주류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류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여성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에 성평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제도대로 죽을 쑤고 있습니다. 단 법적 근거는 강력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에는 성주류화조치를 하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계에서도 제도 따로, 운동 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가 붕괴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성계에서도 제도를 챙기지 않습니다. 장용핑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중국의 추진기구/법률체계/국가계획이 기본요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단체들이 압력을 가하고 챙기지 않으면 따로 가게 됩니다. 여성운동계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 또 심사 체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 활동이 많은 편이라고 느꼈는데 북경에서는 소비자본주의가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가 강해질 텐데 그 차이는 어떻게 느껴지는지요?

1억이라는 숫자에서 군사주의적, 군국주의적 냄새가 나는데 일본 엘리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요? 또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성차별 철폐하라는 이야기로만 들리지만 경쟁이나 승리와 같은 남성적 가치보다 약자의 이권이 중심이 되는 상생과 파트너십의 여성과 여성적 가치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 환황해 공동체 가치에 여성적 가치가 편입되는 지속적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 Q&A |

Q 여성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을 환황해권 안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이나영 저는 여성적 가치라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남성적 가치란 보편적이고 그것에 부가적인 게 여성적인 게 됩니다. 여성적 평화는 주류정책과도 별개이고 인권, 민주주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는 견고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데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허한 미래 담론이 무엇을 가져다 줄 지 회의 중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에 대해서도 '여자 대통령이라서 문제다'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문제이지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별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SNS를 통해 공유되는 투쟁의 경험을 통해 의식화가 되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연대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봅니다.

A 센다 유키 어느 나라에서건 여성은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게 공통적인 취급입니다. 정치에서 여성이 소외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와 저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적 교류 자체에 하나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중국의 성별 평등 심사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장용핑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전히 여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요강이 발표되고 기제가 출범되고 있지만 최근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젠더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냉정한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성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내용들을 정부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성평등, 젠더 주류화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30% 정도밖에 정책 제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Q 소비자본주의가 확대되어가는 중국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어떻게 변했는지.

A 장용핑 계획경제 시절에서 시장경제 시대로 변화하면서 우리도 그 차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하락했는지 제고되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과 건강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90% 이상이라는 지표를 얻고 있는데 도시 인구 중 60%의 여성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간의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UN에서의 기준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직면한 문제는 정치 참여입니다. 앞으로 중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Q 일본의 1억 총활약 사회 정책에 대한 일본 여성계의 반응은? 일본의 여성 노동 형태, 맞벌이 부부의 여성 육아 형태는?

A 센다 유키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충격이 있었지만 농업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강한 리더' '강한 일본'에 대한 일종의 판타지가

생겨났습니다. 지진피해 이후에 사회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원전의 존재에 비판이나 의논을 하려는 움직임이 적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본의 여성들은 '여자들이 파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생활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혼자의 노동은 일본은 M자형 취업이라고 해서 파트타이머가 많았습니다. 독신 여성도 규제완화를 통해 비정규직화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육아를 하는 건 시골에선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도심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특별세션3

2016년 11월 4일(금)

09:30-11:00
"동아시아 청년의 미래"

사회자 | 강명구(서울대 아시아연구소장)

발표자 | 김홍중(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 청년의 꿈의 자본'

테라치 미키토(이바라키대 인문학부 교수)
'일본 청년의 20년 간의 변화와 불변: 재귀와 그들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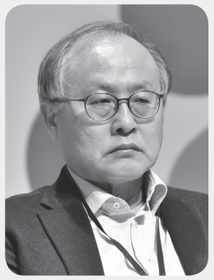
왕정용(대만 국립정치대학 사회사업연구소 부교수)
'본토와의 연결을 통한 성장: 미래를 찾는 대만 청년'

토론자 | 김예란(광운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동아시아 청년세대들의 삶은 한층 더 불안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다. 한 중 일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청년들은 경제 양극화 심화, 노동시장의 극단적 유연화, 승자독식 게임의 제도화를 마주하면서 생존을 위해 고투하고 있다. 이들이 고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많은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현실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문제의 뿌리에 대한 진단, 제도와 정책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논의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 일본, 대만의 청년 연구자들이 모여 각 사회의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의 현황과 어떤 정책적 제도적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제안 및 시사점

- 꿈이 자본이라면 "드림 캐피탈"로 정의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경제 자본 보다 더 큰 불평등으로 문제시 될 수 있다. 문제는 빈곤이 아니라 꿈의 빈곤인데 꿈이 빈곤하면 미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이 자본이라는 말은 꿈이 한 사회가 관리하고 지켜 보아야 하는 공적인 자원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일본 내에서 불공평함, 사회가 폐쇄적이라는 것이 청년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다.
-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실제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것과 괴리되어 있고 제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전략이나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



강명구



김홍중



테라치 미키토



왕정용



김예란

강명구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좋지 않고 그에 대해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토론하러 나와 주셨습니다. 비록 오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은 아니지만 각 국가별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성숙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첫 발표자로 김홍중 교수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홍중 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는 거리가 있는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늘 그렇듯 가장 약한 것이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잘 짚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아시아 청년 미래를 탐구하고 있는데, 가장 큰 키워드로 여기고 있는 것은 "꿈"입니다. 범위가 넓고 모호한 용어이지만 지금 21세기에 청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포착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와 닿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명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미래라는 것은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입니다. 제가 사회학적으로 혹은 조금 더 진지하게 발견한 바는 미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되기 전부터 아이의 이미지, 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아이는 이미 와 있습니다. 아이가 없거나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이와 연관된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래는 생산하는 것이고, 시간이나 계급, 젠더에 따라서 미래를 생산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지금까지 획득된 데이터를 갖고 말씀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청년들과 한국의 청년들은 미래를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와 같습니다. 한 예로 1970년대는 한국 사회가 공장에서 찍어 내듯이 미래를 생산해내던 사회였습니다. 20년 후라는 시간이 집합적으로 70, 80년대에는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다릅니다. 티비를 켜면 나오는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암이나 질병과 관련된 광고를 보면 우리의 미래는 그런 방식으로 상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는 특수한 방식으로 미래를 생산하고 어떤 사회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이처럼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즉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자본 (資本) 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청년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미래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소위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본 개념으로 도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꿈 자본 즉 " 드림 캐피탈"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심오한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 어렵지만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꿈의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검토해서 뽑아낸 몇 가지 능력은 미래를 상상하는 힘 (imagination), 미래에 대하여 품고 있는 낙관성 (optimism), 희망이라는 감정적 자원 (hope), 문제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꿈 꿀 수 있는 힘 (resilience) 이 네 가지를 설문으로 구성하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대단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작가, 미술가, 래퍼 등에게는 꿈 자본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자본이라면 지금 경제 자본보다 더 큰 불평등에 의해서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빈곤이 아니라 꿈의 빈곤입니다. 꿈이 빈곤하면 미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자본이라는 말은

꿈이 한 사회가 관리하고 지켜 보아야 하는 공적인 자원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한국사회 청년세대의 꿈의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꿈은 현재 생존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청년 문화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것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꿈이 서바이벌이라는 대단히 독특한 유형의 꿈으로 수렴되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경쟁 상황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서바이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예전에 흔히 20대에게 기대했던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규직을 갖고 싶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러한 평범한 것들이 꿈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것이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자신의 에너지를 나누어 쓸 영역이 줄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미래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 개인적인 노력,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서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열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명구 김홍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꿈을 자본으로 해서 한국의 상황, 혹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이론적인 모습으로 설명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요즘은 래퍼들을 인터뷰해서 개념화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테라치 미키토 일본에서 젊은이의 사회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최근 한 20년 동안의 젊은이들의 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본의 청년 문제 연구를 할 때 주요 논점이 되는 것은 시대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이 소비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청년의 독자적인 문화를 도출하고자 했던 시대였습니다.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로 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2000년 전후부터 오늘날을 보면, 1990년대 초가 거품경제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격차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연구 동향이었는데, 실제로 젊은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보면 고용의 불안정이 계속되었고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최근의 10년, 20년은 고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젊은이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 즉 자기 책임론에서 젊은이들이 모인 환경이나 사회 구조로 그 역점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 중 하나로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초에 걸쳐 실시된 '새해맞이 파견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였고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잘 수 있는 거주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나 개인적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운이라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해서 청년들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에 대하여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2002년과 동일하게 2012년에도 중시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재능이라는 것이 2012년에는 어떤지 살펴 보고 싶었습니다. 2002년과 2012년을 보면 역시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개인의 재능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2위였는데 이에 비해서 가정환경이라는 것이 2012년 2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1위인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예전에는 노력만큼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환경이 더 중요시되었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불공평함, 사회가 폐쇄적이라는 것이 청년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실력주의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 실력주의는 영국의 마이클 영이 공상사회과학 소설에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개인의 메리트,

능력을 알고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환경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주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변화의 매커니즘이 왜 발생했는지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환경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식이 높아졌는데, 정말 불평등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사고와 어차피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면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사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좋게 생각하면 사회를 바꾸는 방향으로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럭저럭 지내는 행복으로 만족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명구 평범하게 살겠다는 꿈조차 고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김홍중 교수가 이야기 하시고 내가 어쩔 수 없다면 그 어쩔 수 없음이 꿈을 좇게 하는가에 대해 테라치 미키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매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한국에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유턴이라는 항목인데 일본에서 통계를 보면 매년 8~9% 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한국에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대만에서 오신 왕정용 교수님이십니다. 대만 원주민의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왕정용 400여 년 전 한족들이 대만에 오기 전에 대만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만 원주민들은 계속 빈곤한 상태, 하층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말에 따르면 가장 꿈의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산업의 임금을 보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노동력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소득은 굉장히 낮다고 나왔습니다. 대만 젊은이들의 실업률을 한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배워도 쓸 데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전공과 별로 관련 없고 필요 없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출생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만 원주민들은 1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원주민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대만의 한족들과 다른 계통입니다. 이들 소수민족은 한족이 들어오면서부터 자치권을 원했지만 지금까지도 원주민들의 자치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8월 대통령께서 대만 원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대학 학력자 비율은 20%에 못 미칩니다. 이것은 대만 한족들에 비교해서 매우 낮습니다. 원주민들이 일자리는 있지만 임금이 낮고 국가적으로 이들의 소득 재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득 분배에 대한 노력, 원주민에 대한 복지 노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민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 여성이 한 경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경찰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약 520명 정도 남아있는 카나카나푸족입니다. 아푸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락 조성에 나섰습니다. 아푸는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시위했습니다. 정부의 강제적인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푸라는 여성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땅을 하나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농경 문화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또 자신들 만의 언어를 되찾았습니다. 그 당시 알게 된 것은 노인들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가 아니라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들이고 그 분들에 의해서 문화가 계승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수민족들이 서로를 돌보면서 그들의 문화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이 직면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의 자각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인들이 역사에 대해 배운 것은 중국 본토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대만 역사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계 분업에 의한 경제 발전 속에서 젊은이들이 고향을 벗어나 도시에 와서 전통 인식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 속에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식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명구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왕 교수님 발표에서도 교육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이 실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고 꿈을 실현하는 것과 괴리되어 있고 제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전략이나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우선 듣겠습니다.

김예란 김홍중 선생님 말씀대로 미래가 단순히 오거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선생님들이 현재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서 대안적이거나 혹은 해체적인 미래 생성에 대해 아시아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발표들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생존의 평범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질주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중 노동자, 대중 소비자로서 중간에 속하는 우리라는 모호하지만 평범성으로 묶여진 그런 모델을 추구했다면, 이제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해 좌절도 크고 절망도 크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도 열어 두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각 선생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중 선생님께서 한국 청년의 꿈의 자본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꿈의 자본의 잠재력과 그것이 생성되고 수행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가 결합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고뇌의 공통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 궁금한 점은 꿈의 특이성과 공통성의 문제, 혹은 독자성과 조건성의 관계인데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이미지나 집합적 꿈꾸기가 모이는 공간이 고뇌의 공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면 꿈의 공통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와 부대끼면서 꿈을 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정한 사회적 경험 혹은 가치의 공유를 통해서 그런 공통성 자체가 발명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공통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훈육하고 규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테라치 미키토 선생님께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점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경제적 성공을 목표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지 입니다.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특히 일본 사회의 그런 노력이 잠재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단지 경제적 성공에 두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대안적인 논의가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성공이 일본 사회의 주된 힘의 원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력주의라는 것이 도드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재능과 가정 환경 순위가 바뀐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은 노력이 여전히 1위였다는 점이고 근소하지만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본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정용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은, 대만의 원주민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다양한 소수 민족의 운동이 활발한 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강명구 김홍중 교수님부터 답변 바랍니다.

김홍중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이 너무 많은 상태를 야심이라고 보는데, 현실적 가능성보다 너무 많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꿈이 다양하게 넘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꿈과 정치, 통치 문제입니다. 꿈이 통치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식자가 모든 꿈을 먹어 치우지 않는 꿈의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치 불가능한 것이 혹은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 항상 예기치 않은 곳에서 꿈꾸어 지기 때문에, 꿈의 영역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고뇌의 공통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중간에 테라치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경제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2002년의 경우 가정 환경보다 개인의 재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2012년에는 가정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한국 청년들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이것은 김홍중 교수님께 드린 질문인 것 같습니다.

테라치 미키토 김예란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중점으로 두고 조사를 한 이유에 대한 것인데, 연구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2차적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공이 중시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세대를 중시하면서 같은 시점에서 변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2012년 조사를 보면, 이 조사는 사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게 된 자유성이 아니라 청년들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중분에게 받은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자신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자각해온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정용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과정과 모든 사회의 변화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푸의 사례를 말씀 드리면, 아푸는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성 운동 같은 경우 대만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대학 교수들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 사이에는 변증 관계가 있습니다. LGBT 운동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단체들이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부의 토론을 거치고 제도를 거치고 사회 속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명구 시간이 지나서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청년에 대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지역의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로컬 대 로컬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할 때 '환'이라는 고리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 로컬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청년 문제에 관해서도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자치단체회의

2016년 11월 4일(금)

11:20~12:20
“한·중·일 지역별 취약 재해·재난 유형 및 대응 노력
(재난관리시스템)”

사회자 | 이재은(충북대 교수)

발표자 | 충청남도(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구마모토현(관광경제교류국 국장 나카가와 마코토)

시즈오카현(위기정보과 과장 지쿠시 도시유키)

지린성(응급직무처 후쿠오)

황해는 해양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높으며, 생물자원이 풍부하여 어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그러나 황해를 둘러싼 연안역 개발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해양생태계가 급속히 훼손되고 있으며, 남획과 해양오염으로 해양생물자원이 감소되고 있다. 한국, 중국,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는 어느 한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생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없다. 이 세션에서는 황해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협력하여 훼손된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선언문

우리 ‘충청남도’와 ‘지린성, 구마모토현, 시즈오카현’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 가능한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동반자로서 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한 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상시 재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상호 공유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앞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재난에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하며 중앙정부 건의 등 제도개선 발굴에 공동 노력한다.
3. 우리는 각종 재해·재난의 예방이나 대응이 이에 관한 정보 축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종 재난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 교육 등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기로 한다.
4. 우리는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타 단체에 장비·물자 및 전문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우리는 재해·재난을 겪은 후 이에 대한 수습 및 극복과정 등을 반드시 상세하게 기록하고 분석하여 미래에 닥칠 비슷한 유형의 재난을 방지한다.

이재은 환황해포럼 자치단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구마모토현, 시즈오카현, 지린성 대표들께서 각 지역 사회에 취약한 재해 재난에 대해 정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남의 재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실장 전병욱 실장님, 다음은 일본 구마모토현 관광경제교류국 국장 나카가와 마코토님, 일본 시즈오카현 위기정보과 과장 지쿠시 도시유키님, 중국 지린성 응급직무처 후쿠오님 순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전병욱) 충남 풍수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빈번하게 저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100년간 평균 온도 0.75도가 상승하였고 우리나라는 1.8도가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온 상승이 다른 곳보다 빠릅니다. 온실가스를 현재와 같이 배출한다면 2050년까지 온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세계적으로 43년간 7.7.cm 상승했고 우리나라는 약 8cm가 상승했습니다. 2050년까지 약 33.7센티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 강수량, 해수면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기후의 극한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일수가 작년에는 25일을 기록했고 더운 날은 더 심하게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일수도 과거에는 평균 2.7일이었던 것이 최근 4.5일로 증가해서 극한 상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0년간 충남에서는 풍수해로 인해 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 피해는 3,238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급류의 휩쓸림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연도별 인명 피해를 보시면 2010년도 충남 지역에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가 심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망이 1명, 호우로 인한 사망 1명이 있었습니다. 충남은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시면 서천이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서천군을 중심으로 보령, 태안, 서산, 예산 등등 동심원 형태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천은 금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고 태풍이 지나가는 황해에 근접하여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곤파스가 충남에 매우 근접하게 지나가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최대 풍속이 36m/s정도지만 서산에서 측정한 풍속은 50m/s여서 곤파스로 인한 주택 피해, 전파 난파, 침수, 낙과, 비닐 하우스 파괴, 양식장 피해, 선박, 도로, 하천 피해 등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이 재난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에서의 시스템 계통도 중앙 차원에서의 사고수습, 긴급구조는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로 이루어집니다. 지방과 현장에서는 지자체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어 지역 사고를 수습하고 본부 시·도의 긴급구조통제단 기관들이 협력해서 현장 재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를 보시면 도지사가 총괄하고 있는 통제관이 실질 현장지휘 기능을 하고 통제관은 13개의 협업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상황관리, 현장지원, 환경, 통신, 시설, 응급, 복구 등에서 협업에 의해 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풍수해 대응 절차도를 보시면 기상청에서 기상상황에 대한 예보가 있으면 예비 특보, 주의보, 경보의 단계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근무 단계를 정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상시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 순으로 근무 수위를 결정합니다. 기상 특보를 발령하는 기준은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14m/s인 경우, 주의보와 경보는 21 m/s 인 경우 발령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 풍랑, 호우, 대설, 태풍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게 됩니다. 이런 예보의 위험 단계에 따라 저희는 예비특보에서는 관심 단계, 모니터링 단계, 주의보에서는 주의 단계, 준비 단계의 대비태세를 갖춥니다. 경계, 경보 위험이 임박한 상황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데 이는 피해발생시 또는 대규모 피해가 확실히 임박한 경우 발령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준비단(상황관리 1명이 모니터링), 보강 단계(자연재난과장을 중심으로 3명이 모니터 근무), 주의 1단계에서는 재난 안전실 중심으로 8명, 경계2단계에서는 행정부지사 중심 19명이 담당하고, 심각단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방식으로 그 단계에 따라 대비 인원수를 다르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통적으로 재난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입니다. 태풍 대비는 하고 있으나 태풍의 빈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편은 아닙니다. 또한 산업에 의한 피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이상기후 때문에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적 재난, 대규모 화학산단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 특수재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충남은 노인인구가 많아서 재난에 취약한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충남은 안전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기준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위험요소를 대응할 방책을 들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안전문화운동을 재난 관련 종사자 공무원, 유관기관, 자율방재단이 함께 재난 방지를 위한 워크샵을 일년에 2번 이상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례연구를 하는 등 워크샵을 열어 학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재난을 경험했으나 최근에는 한국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 사고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인재와 관련한 사항은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풍뿐 아니라 인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구조단장을 맡고 있는 소방과 협력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운동차원에서 의식 개혁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시 환기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는 우리가 지키자는 문화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방 대비 복구에 대한 체제 재난 예방 사업에 매년 2천4백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방, 시설물 안전보강사업 등등은 충남 1년 예산의 1.1 %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앞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별 재난 대책으로는 여름철 태풍, 호우, 강풍에 대비해 5~10월까지 여름철 풍수 대비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폭설과 한파 기간을 정해서 계절별 취약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복구지원체계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일정액 이상을 재난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험, 풍수해 보험, 농작물, 가축, 양식, 수산물 보험 정책을 지원하여 개인의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물자를 바로 공급할 수 있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700년대 유명한 학자 정약용은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만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예방이 복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재은 풍수해의 빈도가 커지고 있어 여기에 대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올해 4월 14일과 16일 진도6.5, 7.3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약 3천회 가까운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가 126명에 이르고 있고, 인명피해가 2천6백명 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지진피해와 함께 관광경제회복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현(나카가와 마코토)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 상황과 해외 관광객 회복을 향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은 국내, 해외에서 많은 형태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현과 30년 이상 교류하고 있는 충남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구마모토현 지진으로부터 피해상황, 복구상황, 관광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4월 14일과 16일 28시간 사이에 최대 진도 7이라는 지진이 두 번 발생했고, 48시간 중에는 진도 5이상이 14번, 여진이 2000번 이상 발생한 곳도 있었습니다. 구마모토현 시민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구마모토현 인구의 83%가 피해를 입었고 최대 피난자 수는 현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계로 아직 파악이 안 된 차 안에서 거주한 사람을 포함하면 최대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건물 피해도 심했고 지역에 준 피해는 고베 대지진의 2배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약 17만 채 이상의 주택 피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내의 45개 시정촌 중에서 38개 시정촌의 150곳에 라이프 라인이 복구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구조대원이 와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가스관과 배수관이 빠르게 복구되었습니다.

구마모토 정부의 대응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 진도 6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재해대책본부가 자동적으로 설치 됩니다. 4월 지진에서도 자동설치 되어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지진 발생 후 40분 뒤 비상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자위대에 파견 요청을 했습니다. 자위대도 많은 숫자가 와서 한달 반에 걸쳐 인명구조, 자원물자, 식량 공급, 물 등을 공급해주었습니다. 시즈오카현에서도 오셨는데 국내의 많은 지자체 현에서 그리고 현 내의 시정촌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도와주러 오셔서 총 6만명 정도가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현과 정부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전의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임시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계획한 숫자가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설주택 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여관, 호텔을 빌려서 가설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진발생 후 생활인프라 또한 마찬가지로 경이로운 속도로 복구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2주 이내에 전 노선이 복구되었습니다. 큐슈 신칸센도 2주 이내에 운행 재개되었습니다. 아소 구마모토 공항 은 본진으로부터 3일 후인 4월 19일부터 국내선 운항이 재개되었고 국제선으로는 인천, 마카오, 홍콩 노선이 있었으나 6월에 대만 마카오 노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JR호히선이나 구마모토에서 공항까지 가는 도로는 아직 복구 중입니다.

구마모토는 지진 피해 후 복구 노력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같은 경우는 점점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진발생 직후 외국인 관광객이 극감했습니다. 전년대비 마이너스 70%라고 하는 극감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가 지역별로 구마모토현을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오랜 기간 운항되고 있는 아소 구마모토 직항선과 충남과의 교류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진발생 후 현 내의 숙박시설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5월 말까지 33만 명 이상의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답변해준 시설이 반 미만이므로 실제로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관이나 호텔 피해를 합치면 530억엔 정도 됩니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월말까지 추산하면 380억엔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한 대책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마모토의 관광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버전의 홈페이지에서 현 시점에서 영업 가능한 관광시설, 호텔 등이 확인 가능하고 올해 큐슈와 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해외 관광객, 그리고 신문기자 등을 구마모토에 초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복구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구마모토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 관광 루트 맵은 목적지로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도로 개통 시마다 전국 해외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큐슈 전체 지역이 지진복구대책을 위해서 할인여행플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큐슈 각 지역에서는 지진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관광객 분들의 최대 목적지였던 아소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있어서 전세계에서 큐슈에 놀러 오시는 분들의 수가 극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받고, 큐슈 복구를 위한 여행 플랜을 만들어서 온라인 숙박 상품을 50프로 할인해 주거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하루에 3000엔 정도 할인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지, 온천 지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 지역인 아소도 거의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마모토에 한번 와주셔서 직접 보시고 먹거리도 드시고 즐겨 보시고 선물도 많이 사서 돌아가셔서 구마모토현이 이제 다 복구가 되었다는 정보를 많은 곳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2016년 대지진 이후에도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시즈오카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방재와 감재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재는 재난을 예방한다는 의미이고 감재는 재난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시즈오카는 쓰나미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쓰나미의 90% 이상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일로 인해 인명피해 80%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난관리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조(자기 스스로 생명과 재난을 지킨다)입니다. 둘째로는 공조(여러 사람이 협력에서 재난을 막는데 초점)입니다. 자조와 공조를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기반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현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제위기관리협회의 공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의 많은 재난피해지역을 조사하고 있지만 일본의 위기관리노력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시즈오카현(지쿠시 도시유키) 일본은 4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즈오카는 전국 10위 정도이고 제조품 출하액은 전국 4위, 1인당 현민 소득은 3위, 세계문화유산으로 후지산이 대표적입니다. 충남과 시즈오카현은 2013년 우호협정을 맺었고 2014년 상호 방문했습니다. 저희 현은 방재 대책이 동양에서 1위라고 평가받는 수준입니다. 1976년에 도카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시즈오카현은 지진, 해일, 쓰나미 대책에 있어 일본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목표로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7년간 2조 2,779억엔을 투자하여 지진 쓰나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내진화, 학교, 유치원 시설 내진화는 일본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도입된 활동은 첫 번째, 시즈오카현의 지진, 쓰나미 대책의 독자적인 지진피해 예상 방안을 수립한 것과 두 번째, 지진, 쓰나미 행동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야부에 편중되어 있던 토지이용을 반성하고 4월에는 이런 활동을 살리면서 국토 강인화 지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의 기본 기념은 '감재'입니다. 2022년 말까지 10년 동안 예상 희생자 수를 80%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2개 주택 내진화와 지역방재훈련을 통해 내, 외적으로 피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 쓰나미 대책행동 프로그램은 2012-13년의 핵심 중점 시책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시즈오카는 쓰나미 방재를 위해 방조제나 수문 등 쓰나미 방어시설이 물이 불어나거나 쓰나미가 방조제를 넘을 경우에도 방재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재의 기본은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킨다'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지역은 다 함께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부서지지 않는 집에 살고, 가구를 고정하고, 7일간 비상식량과 물을 비축하는 것이 자조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가 일어나서 대피를 할 경우 대피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잘 갖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즈오카현에는 자주 방재 조직이 있고 방재 훈련과 각종 정비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재 조직은 구출 구조, 초기 소화, 평상시에는 방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12월에는 각 지역에서 방재 훈련이 이루어져 학생, 젊은 사람도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지도를 둘러싸고 앉아서 지역 내의 위험지역을 인식하면서 고민하는 DIG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구출, 물자 반송, 임시주택건설을 두어 재해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본부 시설로 위기관리센터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초기 파악도 이곳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현민에 대해서는 방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진방재센터가 있어 지진경험이나 쓰나미 영상, 주택의 내진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은 언젠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주

작은 재해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재 대책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 방재 대책을 세워 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개인, 지자체가 협력하여 함께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은 지린성은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린성(후쿠오) 회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충청남도 정부 및 포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환황해 지역 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포럼의 계획과 중국 대표단의 의뢰에 따라 지린성의 기본 상황과 자연재해 대응 주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린성은 주요 농업성(省)으로 천혜의 농업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발전에 자연재해의 영향이 큽니다. 지린성의 자연 재해에는 주로 기상 재해, 홍수 재해, 가뭄 재해, 지진 재해, 지질



재해, 농작물 생물 재해와 산림 화재 등이 있습니다. 2015년을 예로 들면, 지린성의 50 여개 현, 시에서 각기 다른 정도의 바람, 우박,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린성은 재해구호 이행 중 부단히 예방대응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재해 손실을 최대한 낮추었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근거로 삼아 재해에 대응하였습니다. 중국은 당위원회와 정부의 통일된 지도, 종합적인 조화, 등급별 책임 등 재해구호 관리체계를 실행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응급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국가와 성, 시급 정부는 모두 재해감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국가재해감소를 위한 구호업무 방침, 정책 및 계획을 책임지고 연구 제정하고 있으며 재해 감소를 위한 전국 단위의 중대한 활동과 재해구호 업무를 조화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자연재해 사건의 긴급 정도, 발전 태세와 발생할 수 있는 위해 4급 응급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재해 정보 발표, 구호응급물자 저장, 재해 상황 조기경보 의논과 정보공유, 중대 재난 긴급재난구제 연동 협조, 재해응급사회동원 등 여러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각종 역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재해 구호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재해감소구호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중시하였고 구매 서비스, 경제 보상, 자금 융통 등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구호물자를 마련하였습니다. 군대, 공안, 소방을 핵심으로 하는 돌격 역량과 홍수예방구조, 지진방지구조, 산림소방, 수상구조, 광산구조, 의료구조 등 전문팀을 기본 역량으로 하여 기·사업 단위의 전문 및 응급 지원자 팀을 보조 역량으로 한 응급구조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해 후 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중시합니다. 지린성은 재해물자 비축조달운송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구조정책 완비, 구조항목 증가, 구조기준 제고, 재해 수익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 구조, 과도기 구조, 겨울·봄철 구조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고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린성은 재해 물자의 효과적인 조달 운송 능력을 갖추어 재해지역 이재민의 긴급수요, 식품텐트, 간이건물, 의복과 이부자리 등 생활 필수 물자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후 24시간 내에 제 위치로 운송되도록 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적시에 기본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했고 이재민들이 먹고, 입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임시로 거주하고 병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와 철도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구조 범위에 포함할 것이고 심리적 지원을 하고 이재민들의 실제 수요에 더욱 적합한 구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해 예방과 응급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 형세와 도전에 대하여 지린성은 응급지휘, 긴급구조, 재난구조, 복구재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구조응급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고 응급조치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긴급구조를 실시하고 긴급이전정착, 부상자 치료, 보건 방역, 인프라 응급 수리, 자금 물자 보장 등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중대 자연재해에 대항하여 응급 대응 에서부터 재해 물자의 조달운반까지, 이재민의 기본 생활 보장에서부터 재해지역 인심 안정까지, 사회 기부에서부터 복구 재건의 조직까지 효율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2015년, 지린성은 계획에 따라 응급 물자를 비축하였으며 "지역저장배치, 현지부근조달"의 원칙에 따라 성(省) 저장고를 중심으로 시와 주의 저장고를 지원 저장고로 하고 현과 시의 저장고를 보충 저장고로 하는 3급 연합 저장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국가 기상 부처와 협조하여 폭우, 홍수, 강풍 등 재해성 날씨예보메커니즘을 구축하였고 2015년 각종 재해 경보 정보 400여 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전국 "재해방지감소일"을 계기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사회 대중의 사전 조기경보 대비 능력과 재난 중 긴급피난 능력, 사후 자구 및 상호 구조 능력을 제고하여 훌륭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전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어 전세계의 보편적인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줄이는가는 이미 인류가 오랫동안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자 막중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하여 깊이 교류하고 상호 학습하고 참고하여 자연재해가 가져오는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동북아 3개국 도시간에 상호 협력과 연계가 있었으면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12월에 시즈오카현에서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2월 훈련할 때 충남도에서 함께 가서 참관하고 배우고 지린성에서도 훈련이 있거나 준비 체제가 있으면 한국도 참여해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제2회 환황해포럼
이모저모

VIP 환담회 및 기념촬영

공식오찬(1일차)

공식만찬

환송 오찬(2일차)



제2회 환황해포럼 이모저모















| 행 사 명 | VIP 환담회 및 기념촬영

| 장　　소 | 공주 고마센터 2층 VIP실

| 일　　시 | 11월 3일 09:20-09:30

| 참 석 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
신재원 충남도 제1부의장,
오시덕 공주시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안병근 공주교대 총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국방대신,
진징이 북경대 교수, 이상지 KAIST 교수





| 행 사 명 | 공식오찬(1일차)

| 장　　소 | 공주 고마센터 2층 카페테리아

| 일　　시 | 11월 3일 12:00-13:00

| 주　　재 | 안희정 충남도지사

| 참 석 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
신재원 충남도 제1부의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역할참가자 75명





| 행 사 명 | 공식만찬
| 장 소 | 공주 고마센터 2층 카페테리아
| 일 시 | 11월 3일 18:15-20:00
| 주 재 | 안희정 충남도지사
| 공 연 |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가야금 3중주
| 참 석 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VIP 및 역할참가자 100명







| 행 사 명 | 환송 오찬(2일차)
| 장 소 | 공주 고마센터 2층 카페테리아
| 일 시 | 11월 4일 12:20-13:30
| 주 재 |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
| 참 석 자 | 역할참가자 75명





제2회 환황해포럼 결과보고서

발 행 처 충청남도

발 행 일 2016년 12월

디자인·인쇄 쇼이스디자인 (02-2275-2633, 044-868-2634)